

교육개발

파워 인터뷰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군장대학교 총장

특별기획

공교육 정상화, 추진 방향과 전략, 성공요건
자유학기제의 성과와 성공적인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 방향과 전략, 성공요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방향과 전략, 성공요건
일 · 학습병행제 확산, 추진 방향과 전략, 성공요건

세계의 교육

선진국들은 학교 보건교육과 방역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주요국의 교원평가 사례와 시사점
일본 · 호주 · 싱가포르의 유학생 유치전략

세계 속의 한국교육

위대한 여정, 새로운 실크로드를 찾아서
-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이슈와 전망

미래 유망 직업 및 인기 직업 미래 고용 전망

포커스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성과와 과제

정책과 현장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SW교육의 방향과 전망

2015
AUTUMN
Vol.42 No.3



‘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1972년 8월에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 회원 자격 및 특전

- (1)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 (2) 우리 원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 4회)을 보내 드립니다.
- (3)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연 회 비 :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 입금계좌 : 296-13-00262-4(외환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 의 처 : 정보자료팀 Tel : (02)3460-0407

E-mail : book@kedi.re.kr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우리 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표지 | 사진 공모전 수상작
채창병의 가을로 가는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백순근

편집장 | 문성룡

홍보출판심의위원 | 윤중혁(위원장), 김미란, 김주아, 문성룡,
박경호, 박희진, 이성희, 임소현, 장명림,
정바울, 황준성

편집실 | 한지연, 백승균, 이나경, 김태희, 김소라

디자인·인쇄 | 세일포커스 02-2275-6894

홈페이지 | <http://www.kedi.re.kr>

발행 | 2015년 9월 21일

계간등록번호 | 서초바 00022

등록번호 | 2013년 1월 23일

정가 | 6,500원

구독문의 | 02-3460-0319 keditor@kedi.re.kr

06

파워인터뷰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군장대학교 총장

17

특별기획

공교육 정상화, 추진 방향과 전략, 성공요건

김재춘 교육부 차관

자유학기제의 성과와 성공적인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교육개혁추진협의회 자유학기제분과위원장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 방향과 전략, 성공요건

김태완 지방교육재정혁신추진단 단장·한국미래교육연구원 원장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방향과 전략, 성공요건

김용승 가톨릭대학교 부총장

일·학습병행제 확산, 추진 방향과 전략, 성공요건

정태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진로교육연구본부 본부장

46

세계의 교육

선진국들은 학교 보건교육과 방역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장창곡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주요국의 교원평가 사례와 시사점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일본·호주·싱가포르의 유학생 유치전략

이기정 한양대학교 국제처장

67

세계 속의 한국교육

위대한 여정, 새로운 실크로드를 찾아서

-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김윤기 경기 소사고등학교 교장

75

이슈와 전망

미래 유망 직업 및 인기 직업 미래 고용 전망

정형진 중앙일보 사회부문 메트로G팀 기자

81

포커스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성과와 과제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

85

정책과 현장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SW교육의 방향과 전망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90

‘한국교육정책연구’ 최전선을 가다

변형되고 있는 세계 속 글로벌교육의 싱크탱크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

김미숙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 실장

98

현장르포

꿈 키우고 끼 살리는 희망의 날개 활짝 편다

- 대전 판암초등학교

강은경 충청투데이 기자

꿈꾸는 학교, 나누는 우리, 행복한 학교 3통(수업通·비전通·행복通)

- 광주 송의중학교

박정철 전라교육신문 기자

진정성으로 일군 ‘일반고의 롤 모델’

- 부산 장안고등학교

김경 베리타스알파 기자

변화와 혁신으로 대한민국 명문대 지도 바꾼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민 대학저널 기자

119

교육통계 FOCUS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황정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제는 GCED와 GCS로 글로벌 교육 선도해야



21세기 세계화 시대,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교육에서는 물론 전세계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GCED와 GCS에 대한 연구·개발·적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대학·연구소·기업·언론 등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광복 후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해 왔던 방법 중의 하나가 다른 교육선진국들의 교육정책들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초기에 미군정기를 비롯하여 미국의 교육정책을 주로 모방하던 시기를 거쳐, 70년대부터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교육정책을 주로 모방하였다. 90년대부터는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유럽의 교육정책들도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에는 전 세계의 우수 교육정책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모방형' 혹은 '추격형' 교육정책은 우리나라가 압축적이면서도 매우 빠르게 교육을 발전시켜 교육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21세기 세계화 시대,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방형' 혹은 '추격형'은 그 효용성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모방하거나 추격할 만한 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창조형' 혹은 '선도형' 교육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교육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교육',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의 성공적인 구현과 함께,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GCED(Global Citizenship Education, 글로벌 시민교육)와 GCS(Global Competency Standards, 글로벌 직무능력 표준)와 같은 미래지향적 의제를 선도적으로 연구·개발·적용해야 한다.

먼저, GCED는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역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개개인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체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UNESCO(2013)는 글로벌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 배려, 차별하지 않음, 관용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결정능력 등

인지적 능력을 갖추며, 공감, 도전정신, 열린 마음, 타인에 대한 존중, 팀워크 등 비인지적 특성을 지니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헌신 등 글로벌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 직무능력 표준)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수준에서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이러한 NCS를 글로벌 시대에 적합하게 세계수준으로 확장·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GCS가 될 것이다. NCS를 바탕으로 GCS를 성공적으로 연구·개발·적용한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고등교육정책을 선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GCS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잠재가능성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현실에 잘 적응하게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현실에 잘 적응하게 하되, 동시에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교육에서는 물론 전 세계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GCED와 GCS에 대한 연구·개발·적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대학·연구소·기업·언론 등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백 순 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군장대학교 총장
대담 ·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임기 내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꼭 이룰 것”

“전문대학 발전 위해선 특성화 영역 활성화와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칼리지 육성이 핵심”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군장대학교 총장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큰 과제였다면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즉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회장으로서 가지는 책임이기도 하지만 모든 전문대학인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회장(군장대학교 총장)은 자신의 임기 내 역점과제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라고 강조하면서 “수업연한의 다양화로 현재의 2~3년 과정이 약 85%로 유지되면서 나머지 15% 정도를 평생교육 차원의 1년 과정, 직무내용에 따라 고도화 또는 융복합 분야의 경우 4년 과정으로 직업교육체제를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승우 회장은 또, 전문대학의 구조개혁과 관련,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면 전문대학, 일반대학을 막론하고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

다.”면서 하지만 “구조개혁 초기에 정부가 산업수요를 반영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고등교육 기능 확장을 통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쪽으로 수정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전문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영역의 활성화와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칼리지의 육성이 핵심”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대학공간이 많이 남는다면 지역주민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평생교육 역할을 전문대학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지난 9월 1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있는 전문대교협 회장실에서 이승우 회장을 만나 전문대교협 회장에 취임한 소회와 앞으로의 바람, 재임 중 역점사업, 전문대학의 현안과 과제 및 발전방안,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과 제언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백순근 원장 :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전문대교협에 대한 교육계와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책임이 무겁고 각오도 남다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문대교협 회장을 맡으신 지 1년이 되셨는데,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우 회장 : 사실 이번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큰 과제였다면 '전문대학 수업 연한 다양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즉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회장으로서 가지는 책임이기도 하지만 모든 전문대학인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15대 회장님이 '교'자 명칭, '총장' 명칭 전환 등을 통해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

전문대교협 회장을 맡으신 지 1년이 되셨는데,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육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면 전문대학이 일반 대학과 상하 개념이 아닌 병렬 차원의 인식 전환을 계속 알려가 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회장에 취임하신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하실 정책이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우 회장 : 실질적으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전문대학만의 독창적인 분야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한 가지로 지난 7월 9일 전국 전문대학이 참여한 '전문대학 한식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권역별 금상 수상팀은 해외 홍보 사절단으로 한식 드림팀으로 구성되어 오는 11월에 미국 뉴욕 주재 유엔대표부의 만찬을 직접 준비하여 각국 외교인사들에게 한식문화를 알리는 한국문화 한류를 홍보하는 셰프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추후 전문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로 대회를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대학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발굴하고자 합니다.

백순근 원장 : 평소 '전문대 역할론'을 강조해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과의 영역 다름보다는 사회적 비용차원에서 학력 과잉을 잡아야 하며,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역할을 통해 인정받을 때 우리 경제의 기초가 탄탄해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문대학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승우 회장 : 솔직히 전문대학의 위상이나 경쟁력이 높아졌다거나 낮

아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대학은 변함없이 그리고 꾸준히 시대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가 필요로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대학의 강점과 경쟁력, 핵심가치는 특성화입니다. 즉 세밀한 학과가 밀도 있는 교육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전문대학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꾸준히 시대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가 필요로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것에 지향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전문대의 비전을 ‘커뮤니티 칼리지’로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기업의 필요에 부응해 기능인, 직장인을 길러내는 밀착형 대학으로 요약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과 이유에서 그 같은 생각을 하셨고,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승우 회장 :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전문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영역의 활성화와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칼리지의 육성이 핵심입니다. 자기 분야의 특성화된 영역의 대학들의 장점은 그 대학만의 특화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으며, 그 학생들을 기업이 원하는 대학, 쉽게 말해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대학들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대학공간이 많이 남는다면 지역주민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평생교육 역할을 전문대학이 맡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문대학이 반드시 안고 가야 하는 숙제이며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전문대 수업연한을 현행 2~3년제에서 1~4년제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일부 4년제 대학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히려 ‘4년제 대학의 전문대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

전문대학이 일반 대학과 상하 개념이 아닌 병렬 차원의 인식 전환을 계속 알려가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고 있습니다.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과 법안 통과 전망, 향후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우 회장 :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은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수업연한 다양화는 전문대학의 학과를 1년부터 4년까지 다양하게 풀어주는 학제를 말합니다. 정의하자면 전문대의 수업연한 다양화가 아니라 직업교육의 수업연한 다양화로 봐야 합니다. 수업연한의 다양화로 현재의 2~3년 과정이 약 85%로 유지되면서 나머지 15% 정도를 평생교육 차원의 1년 과정, 직무내용에 따라 고도화 또는 융복합 분야의 경우 4년 과정으로 직업교육체제를 시대의 패러다임



향후 10년 간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가는 물론,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과 제언을 듣고 싶습니다.

의 변화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에서는 전문대가 수업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대학의 과당경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일반 대학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이 다 같이 죽는 길이고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단지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한정한 학과에 있어 1~4년 과정도 수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다, 안 된다라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 지방의 일반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현재 상태에서 전문대가 4년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4년 과정으로 할 경우,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교육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때는 총 입학정원에서 50%를 줄여야 하는, 오히려 정원감축의 효과를 가져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업연한 다양화는 1~4년 과정을 폭넓게 열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정과제로 추진한 법안이기에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고용노동부가 서비스 특화 폴리텍대학의 신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국고의 낭비이며 대학 구조개혁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 같은 말씀을 하셨고, 폴리텍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 및 육성(운영)과 관련, 정부정책의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우 회장 : 이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볼까요. 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소관인 고용보험기금의 독자적 수혜를 받으면서 폴리텍대학 설립의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은 기능훈련을 기반으로 전문대학은 직업교육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폴리텍대학이 학위중심으로 운영돼 본래의 기능을 이탈하면서 국고의 낭비성 및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학령인구 감소 및 청년실업 문제, 고용률 창출 문제 등의 종합적인 차원의 산업현장 인력양성 및 훈련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대부분 사학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차원의 인력양성 책임의 관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전문대학에도 수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백순근 원장 : 정부의 국정과제인 능력중심사회 구축과 관련, “이제 학벌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바뀌고 있다”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방식의 교육변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국내외에서 양성한 인력이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선진화·세계화로 가고 있는데, 전문대학이 능력중심사회로 발전해 가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어떤 신념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우 회장 : 단언컨대, 전문대학의 강점과 경쟁력은 특성화입니다. 특성화라는 단어는 전문대학에 알맞은 교육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대학은 산업의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백화점 같은 나열식의 학과개설을 지양하고 사회에 꼭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경쟁력이 되고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는 편의점 식의 학과개설과 맞춤형 실무교육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백순근 원장 :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학 구조개혁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간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가는 물론,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과 제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학령인구감소시대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전문대학이 추구해야 할 구조개혁과 특성화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상우 회장 :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면 전문대학, 일반대학을 막론하고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하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개혁 초기에 대학 폐교까지 거론

전문대학, 일반대학을 막론하고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구조개혁 초기에 대학 폐교까지 거론됐던 방향에서 **정부가 산업수요를 반영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고등교육의 기능 확장을 통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쪽으로 수정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됐던 방향에서 정부가 산업수요를 반영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고등교육의 기능 확장을 통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쪽으로 수정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학 문을 닫아버리면 지역사회가 아주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자행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학 전체가 다 같이 덩치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대학 출신의 우수 인재를 확대하기 위해 1도 1명품 전문대학 형태로 경쟁력을 갖추고 단계적

최근 전문대학들이 전공교육은 물론, 인성교육과 글로벌 교육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실용능력과 함께 인성과 글로벌 능력까지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교육분야는 무엇입니까.



로 그러한 모델 대학을 늘려 갈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도 원하고 대학도 살며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최근 전문대학들이 전공교육은 물론, 인성교육과 글로벌 교육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실용능력과 함께 인성과 글로벌 능력까지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인성과 글로벌 교육의 비중을 높여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외에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교육분야는 무엇입니까.

이승우 회장: 결국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드는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은 시간이 되면 능숙해 지지만 심성은 다릅니다.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의 부정적 교육기사들의 내면에는 인성교육의 부재라는 요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의 공급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대학의 사회적 위상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직업교육을 넘어설 수 있는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어떻게든 가르칠 수 있지만 예절과 심성은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취업교육에 체계적인 직업기초교육과 인성교육을 더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른 심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새로운 전문대학의 인재상이 될 것이며 또 그런 친구들을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백순근 원장: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문대교협 주최로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와 '2016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돼 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해 주시고, 성과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승우 회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심지어 어린이들도 흥미로워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재미없는 관제행사는 듣기만 해도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 2013년에 시작된 전문대학 엑스포 행사가 전문대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2014년은 그 가능성을 보였다면 2015년에 진행된 올해 행사는 전문대학과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에 믿음을 준 잔치마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온 선생님, 두 딸의 손을 잡고 온 아버지 등 다양한 분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청

소년들에게는 전문대학에 대한 호기심과 직업교육에 대한 비전을, 학부모들에게는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와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 전환을 그리고 전문대학 구성원들에게는 사명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무대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에 이어,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문대학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문대학 육성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기존의 정책 외에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회장님 나름대로 꼭 필요한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있어야 된다면 무엇인지요. 아울러 교육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우 회장 :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고용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발표되는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 여전히 각 부처가 따로 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직업교육을 ‘흑묘백묘’의 의미로 정부도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쥐를 잡을 수 있는 고양이를 키우고 애정을 줘야 합니다. 솔직히 산재된 직업교육 및 훈련기능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정치력과 실행력을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왜 전문대학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정부가 중복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 교육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집중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혼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 직제상 직업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문대학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입니다. 이 말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기조로 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 확산, 창업친화적 교육 강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3년 차인 올해에는 이미 발표한 정책들의 구체적인 추진과 함께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꿈·끼교육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발, 대학 구조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 등을 집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교육정책들에 대해 간략히 진단, 전망해 주십시오.

전문대학의 사회적 위상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직업교육을 넘어설 수 있는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취업교육에 체계적인 직업기초교육과 인성교육을 더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른 심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새로운 전문대학의 인재상이 될 것입니다.



전문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각 대학을 이끌고 있는 총장들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 CEO의 역량과 리더십,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우 회장 : 여러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히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에 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문대학 관련 정책으로 보자면 큰 줄기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과정의 추진과 유니테크(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육성방안의 큰 의제 중 하나인 '수업연한 다양화'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빠르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전문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4년제 대학도 마찬가지) 각 대학을 이끌고 있는 총장들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문대학 CEO의 역량과 리더십,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우 회장 : 특히 전문대학 CEO로서 가져야 할 방향성은 내 제자들을 '창조적인 인간으로 교육시킨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볼 때 학교에 오는 것을 재미있어 하고 자신의 놀이터로 생각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른인 제가 볼 때도 마음이 뭉클하고 교육자로서 보람을 가지게 됩니다. 전문대학 총장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바빠 움직이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전문대학은 공부를 못하고 집안이 어려워져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전문가를 꿈꾸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이 와서 할 교육마당입니다. 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부지런하고 마음씨 좋은 수위 아저씨라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전문대학 총장입니다.

백순근 원장 : '지역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수준의 직업교육중심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 중심성 있는 우수인재 양성, 창조적 기술문화 창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세계화 선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열린 대학을 추구하고 있는 군장대학교의 위상과 역할, 도전과 성취, 미래비전과 발전계획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이승우 회장 : 군장대학교는 '창조적 교육론'을 정립하시고, 교육현장에서 '창조적 인재육성'을 펼쳐오고 계시는 학창 이종록 선생님이 1950년도에 설립하신 학교법인 광동학원에, '창조적 인간교육'을 구현하고자 1994년에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습니다. 군장대학교는 창조적 인간교육을 건학이념으로, 새로운 문화가치의 창

조, 인간의 창조성 도야, 과학적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군장대학교는 짧은 개교 역사 속에도 건실한 산학협력을 근간으로 지역 경제구조에 맞는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과 기업 계약형 학과 운영을 통해 지역 산업체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체의 현장 전문인력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당해 기업으로부터 현장교육을 지원받아 높은 숙련도의 우수한 인재와 전문직업인을 배출함으로써 건

내 제자들을 ‘창조적인 인간으로 교육시킨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빠 움직이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전문가를 꿈꾸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부지런하고 마음씨 좋은 수위 아저씨라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실한 기업체에 높은 취업률을 확보, 지역 명문대학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우리 대학 ‘신재생에너지계열’은 ‘에너지사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매년 졸업생 120여 명 중 80% 이상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군장대학교의 창조적 인간교육의 핵심 중 또 하나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한 글로벌 전문인의 육성’입니다. 창조적 사고는 ‘올바른 인성’과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기에, 단순한 기술인력이 아닌 ‘생각하는 전문기술인력’, ‘글로벌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 대학에도 학령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도 대학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내부 개혁을 단행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왔고, 최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도 그 결실의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부 개혁과 질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평생직업교육의 메카’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창조적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대학으로 성장, 발전하여 전국 톱에 진입한다는 목표와 ‘군장대 명장인(群長大 名匠人)’ 즉, ‘잘 가르쳐서 명장을 육성하는 대학’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회장님께서서는 어떤 교육철학이랄까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훈육하고 대학을 경영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우 회장: ‘너 자신을 만들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저 스스로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학생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신을 만든다는 것은 본인은 잘 알지 못하는 ‘점수’를 평상시에 꾸준히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 점수를 쌓아 놓아야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점수를 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조직의 요직을 맡게 될 때 점수가 한 70점, 80점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

에 올라가게 되면 그 때부터 엉망이 됩니다. 적어도 90점 정도는 쌓아 놔야 비전을 제시하며 존경도 받고 조직도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점수를 쌓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저는 '점수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백순근 원장: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우 회장: 전문대교협 슬로건 중 '전문대학이 미래 에너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결국 전문대학이 대한민국 발전소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동안 해왔듯이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더 큰 틀의 비전과 수준 높은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동안 해왔듯이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더 큰 틀의 비전과 수준 높은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P R O F I L E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군장대학교 총장

1956년 전북 군산 출생.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정책학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올림픽조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1992년 전북 순창군수로 선출되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지방행정관실 행정관('95), 전라북도 정부부지사('05~'06), 중앙공무원교육원장('07~'08), 전문대학기관평가 인증위원회 위원장('11~'14),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12~'15),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12~'15) 등을 역임하였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군장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중이며, 2014년 9월부터 제16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 방향과 전략, 성공요건



클
·

김재춘

교육부 차관

스마트 혁명과 세계 통합의 가속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등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해 온 한국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추격형 인재(Fast-Follower) 양성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한 선도적 인재(First-Mover)를 양성하기 위해, 성

과·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꿈·끼 탐색, 핵심역량 함양, 행복교육으로 나가는 교육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교육개혁을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난 2년여 동안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유학기제



도입, 진로교육법 제정,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지방대학육성법 제정, 대학구조개혁 추진, 고졸취업 활성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2015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 확대(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교육개혁 추진을 지원하고 점검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하에서는 공교육 내실화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살펴본 뒤 5가지 정책의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 공교육 정상화의 기반 닦기: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사교육 수요의 유발요인이 된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 전까지, 학교에서는 입시준비라는 이유로 또는 학생들 간의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아직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이른바 ‘선행출제’의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제정(3월)·시행(9월)되었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으로 ①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선행교육 행위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행위가 금지되었고 ② 학교와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해당 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③ 학원 등에서 선행교육에 대해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행위가 제한되었다. 한편,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8월 11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① 농산어촌 등의 지방소재 재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방과후학교 규제가 완화되었고, ②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대학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평가결과 제출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③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의 실시를 통해 합격자가 발표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도록 규정되었다.

공교육정상화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시험을 금지함으로써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적정 분량의 교과지식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선행교육을 바라는 부모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의 기본 취지를 공유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의 학교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II.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 과제

1.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토론·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이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인성·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비전 및 운영 방식은 학교혁신의 첫 걸음이 되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처음 도입된 당시만 해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으나,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2013년 42개교, 2014년 811개교, 2015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80% 수준인 2,551개교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안정적 정착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체 중학교(3,204개교)에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5년 7월,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를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정착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에 더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방면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추진계획을 세우는 시점부터 교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교과내용이 재구성 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실수업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지난 2년간 운영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수업·평가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과정중심 평가 운영모델을 매뉴얼 형태로 보급하여 학생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교원연수를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교사 주도적 워크숍을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중앙-지역으로 이어지는 자



유학기제 체험활동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 7월 기준으로 58,882개의 체험처와 102,507개 프로그램을 확보하였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단'(177개) 및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체험처를 발굴하고 이를 학교와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온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이루고 싶은 꿈이 생길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역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학교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은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자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입시경쟁이 극심한 성적중심의 교육체제 하에서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교육부는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정책추진을 국가와 지자



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가정-학교-지역 사회 연계망 구축의 중요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성교육 진흥법을 제정(2015년 1월 20일)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① 5년 단위의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② 인성교육 전반 사항을 심의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③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실시 ④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의 조례제정 ⑤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던 인성교육의 외연이 가정-학교-사회로 넓어졌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인성교육에 대한 책무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이수하여 전문성 및 지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은 참여형 수업방식,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받고 바른 인성을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입시와 성적 위주의 교육풍토가 개선되고, 세계시민으로서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행복한 학교 여

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성교육정책 및 학교현장의 인성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1월 중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3.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와 학습내용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대폭 감축하여, 배움을 즐기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습내용이 줄어든 대신,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학교현장에서는 토론학습, 협력학습,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교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새로운 교육과정이 갖는 특징이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의 수업을 1시간씩 증배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학교급 간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며,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제시하여 경쟁중심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린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

용되면, 학생들은 문·이과의 구분 없이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을 배우게 된다. 나아가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진로선택 과목을 제시하였다.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감소하며, 개개인의 문제해결능력 및 협의역량이 길러질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공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

교원의 전문성은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육부는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왔다. 우선 교원평가제도의 개선은,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에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 온 과제이다. 교원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근무성적평가, 교원성과상여금평가의 세 가지 평가방식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여 평가요소의 중복성을 완화하고, 보다 실효성 높은 평가제도가 되도록 개선했다.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교원 능력개발을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활동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헌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본연의 업무가 존중되고, 수업의 전문



성을 가진 교사를 우대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도 역시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정책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로서 수업과 생활지도 컨설팅, 신입 교사와 교육실습생 지도, 교육자료 개발과 연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교사는 수석교사의 수업 노하우, 교수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수석교사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체 교사의 수업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4년차에 접어든 수석교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수석교사에 대한 재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교사들이 교직에 입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직 중에는 교사로서 긍지와 보람,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교원정책을 집중할 예정이다.



5.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입시제도 개선

과도한 사교육의 궁극적인 원인은 대입·고입 등의 입시에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교육부는 학생들이 불필요한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고교 입시의 경우, 특목고 입시가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각 학교가 지정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자사고)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지 5년 단위로 평가하여 해당 학교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운영 성과평가 결과, 평가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입시에서는, 대입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한 학생부 전형중심 대입전형체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잦은 입시제도 변경, 대학별로 복잡한 대입전형과 예측이 어려운

수능 난이도는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대입전형의 사전 예고제 운영 내실화를 교육부와 대학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에 따라, 대학교는 대학입학 시험 전에 기본사항(2년 6개월 전) 및 전형계획(1년 10개월 전)을 발표해야 한다. 1등급으로의 무한경쟁을 막기 위해, 3월부터 9월(예정)까지 영어 절대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1학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8년부터는 수능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등학교에서 준비 가능한 요소로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2015년 510억 원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III. 사회적 관심과 협조

공교육 정상화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워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교육 주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2년간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의 목표 수립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들은 기대 이상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목적한 이상의 성과를 끌어냈다. 비전과 성과에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덕분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학교,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입시제도 개선’의 정책들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 자유학기제의 성과와 성공적인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자유학기제분과위원장

I.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을 넘어 ‘전면 확대’로!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

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자유학기제는 어느덧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개혁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자유학기

1) 이 글은 교육부의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자유학기제분과위원회의 회의(2015. 8. 12)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제 도입 초기에는 ‘우리 현실에서 과연 이런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일부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전면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2012년 말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3년 2학기에 42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비록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2015년 올해는 전국 중학교의 약 80%에 해당하는 2,551교에서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계획상 2015년의 목표치로 잡았던 1,500교(약 50%)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이다. 그만큼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뜨겁다는 증거이다.

이 같은 교육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지속시키면서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통해 확인된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 제도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Ⅱ. 시범 운영을 통해 확인된 자유학기제의 성과

2013년부터 시작된 자유학기제의 시범 운영을 통해 확인된 성과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되었던 여러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고 수업이 재미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고 학교 수업이 재미없어서 무기력하게만 지내던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중요한 성과이다. 또한,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의 꿈과 삶의 목표를 찾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경험을 하고 있다. 비록 자유학기 한 학기로 자신의 진로를 확정짓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진로를 개척해나가면 좋을지 미래의 꿈을 탐색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이 점수위주의 시험부담 없이 학습의 과정 자체에 몰입하고 실생활과 연관된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행복도가 증진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학습과 학교생활에 관심 없던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을 기다리고,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수업과 학습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는 교육 현장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자유학기제는 교사에게 교직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데 기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수업의 방향과 내용을 판단할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오는지 여부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였다는 어느 교사의 말처럼, 자유학기제에서는 교사가 좀 더 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교육적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수업 진도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학생들이 교과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한다. 그만큼 교사의 자율성이 높아져 스스로의 전문성과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지고 교사의 자존감과 긍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교사가 교직에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되면 그것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는 다시 해당 교사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교직에 헌신하도록 하는 선순환 기능을 하게 된다. 참고로, 강원도교육청의 한 원로 교사는 그동안 교직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해 명예퇴직을 고려하다가,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직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되찾고, 자유학기제의 좋은 점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전도사로서 교육 현장을 중흥무진 누비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자유학기제는 교사에게 교직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기 전만 하더라도 전국 중학교의 시간표는 천편일률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과정 속에 학교별 특성이 담겨 있지 못하고, 모든 학생들은 거의 비슷한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수업이 서로 다르게 되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학교별로 일주일에 10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자유학기를 위한 진로탐색 활동, 주제 선

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시간들을 다채롭게 편성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것도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편성이 아니라, 학생들의 희망과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 상황에 맞게 편성·운영하며, 학생들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학교별로 다양한 활동들이 편성·운영되면서 교육과정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교과와 연계한 주제 선택 활동 시간을 많이 편성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어떤 학교는 교과보다는 학생들의 적성을 중심으로 주제 선택 활동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을 많이 편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의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면서 학생들은 학교 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학부모들은 이러한 자녀의 태도 변화나 학교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에서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자유학기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에서의 교육활동은 학교 안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도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현장 체험, 견학, 진로캠프 등 다양한 직·간접 체험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체험형 교육활동은 학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실행하기가 어렵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 최근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 시민단체, 사설기관 등이 모두 자유학기제의 체험형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습공간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협력자들이 되고 있다. 학교들도 자연스럽게 외부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학교의 문을 열고 지역사회와 손잡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처럼 자유학기제는 교실 밖의 공간을 학습공간으로 만들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안으로 유입시켜 학교의 교육활동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네트워킹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Ⅲ.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자유학기제가 시범 운영을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는 모두가 놀랄 만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널리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창의적인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전면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자유학기제에서는 교사들에게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는 만큼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더욱 요구된다.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 뒷받침 될 때 자유학기제에서의 교육활동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교사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새로운 수업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워크숍 중심의 소규모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 내외에서 교사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상호 학습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등 협력적 학습기회를 많이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과 체험처 및 강사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자유학기에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학기에 비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체험처 및 강사풀 확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사들이 자유학기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워하였던 것이 바로 좋은 체험처 및 유능한 강사 확보였다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인적·물적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도움과 중앙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국의 모든 중학생들을 위한 수준

높은 체험 인프라가 단기간에 확보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자유학기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자유학기제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할 때 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체험형 교육활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필요한 '진짜 학력'이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자유학기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그것이 추구하는 지향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자유학과 일반학기, 나아가 타학교급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자유학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학기로 운영한 한 학기만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 전반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학기의 특성을 다른 일반학기, 나아가 타학교급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학기의 주요 특징인 학생에게는 꿈과 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과 교사에게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일반학과 타학교급에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



해야 할 것이다.

IV. 창의적 교육개혁의 촉매제 대야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도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없이는 성공적인 확산과 운영을 기대할 수가 없다. 자유학기제는 시범 운영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둔 매우 좋은 교육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당국과 교육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과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필요하다. 부존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화 시대, 창조경제 시대에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포함한 창의적인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개혁의 촉매제가 되어야 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확산 및 운영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 방향과 전략, 성공요건



글

김태완

지방교육재정혁신추진단 단장 · 한국미래교육연구원 원장

I.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개혁의 필요성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정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개혁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 과제는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재정은 증가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재원을 잘 배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둘째, 정부가 항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제한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여 제안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미션에 대해 응답하기 전에 먼저 국내외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현황을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필요성은 먼저,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있다. 국제적으로는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한 선진국들의 환율과 금리 변동 등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쳐 국내 생산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세월호와 메르스 등의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인 요인으로 경기부진과 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학생안전을 위해 낙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희망하는 교원의 명예퇴직을 수용하며, 경제력이 약한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등 국가수준에서 필수적으로 담당해야 할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지출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추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무상급식 등 새로운 복지비용의 증가, 신도시 개발과 매년 약 15%에 이르는 국내 인구이동에 따르는 학교신설 등 새로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는 교육재정 운영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는 즉시 반영해야 하지만 구도심과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는 아주 작은 인원의 학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교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처럼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은 [표 1], [표 2], [표 3] 과 같이 지방교육재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표 1]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의 교부금의 변동상황을 보여준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까지 매년 약 3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부터 세수가 줄어들음으로 인해 2014년에 0.2조, 2015년에 1.5조씩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액	322,980	352,831	384,473	410,619	408,681	394,056
전년 대비	△3,531	29,852 (9.2%)	31,642 (9.0%)	26,146 (6.8%)	△1,938 (△0.5%)	△14,625 (△3.6%)

[표 2]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교육분야의 주요 지출내용이다. 주로 교원 명퇴를 수용하는 인건비와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르는 비용이라 볼 수 있다. 2010년 대비 2014년에 증가한 예산은 약 10.1조 원으로, 인건비(6.0조), 누리과정(2.9조), 무상급식(1.1조), 그리고 돌봄교실(0.1조) 등 주요 사업비 분야이다.

[표 2] 교육관련 주요 투자분야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감률(%)
인건비	273,438	286,360	299,189	320,697	333,233	5.5
누리과정	5,290	7,376	15,631	26,853	33,979	135.6
초등돌봄	1,343	1,519	2,212	2,243	2,842	27.9
무상급식*	4,845	9,351	11,527	14,497	15,666	55.8
계	284,916	304,606	328,559	364,290	385,720	8.8

* 무상급식은 자치단체 부담 분을 제외한 순수 교육청 예산만 포함

수입은 줄고 있는데 지출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음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세수 결손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규모의 확대에 의해 2015년 말 부채 잔액은 약 21조 원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부채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정)
인건비	21,339	20,769	29,697	47,874	109,403
누리과정	134,347	127,282	119,708	110,373	101,037
초등돌봄	155,685	148,051	149,406	158,246	210,440

* 2015년은 지방채 발행 승인액 기준

위의 세 표는 지방교육을 위한 재정 수입은 줄고 있는데 지출은 늘고 있으며, 따라서 부채가 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방교육재정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교육재정은 증가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세수의 증감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와 같이 매년 약 3조씩 세수가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좋은 때는 무상급식과 같은 신규사업을 도입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나 중장기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2014년 이후와 같이 세수의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때는 세출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성장 안정화기에 진입하고 있음으로 인해 과거 수준의 지방교육재정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투자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교육당국은 학교신설 시 인근 소규모 학교의 이전 재배치 추진에 소극적인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5년간(2010 ~ 2014) 전국적으로 260개교의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었으나, 소규모 학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1년에 700개교에서 2014년에는 1,753개교로 약 1,000여개가 늘어났다. 반면, 신설 학교의 수요는 매년 100여 개교에 이르고 있다.

넷째, 지역별 학생 수 변동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이 이러한 변동요인을 반영하는데 소극적인 점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수는 25.2명, 교사당 학생 수는 17.1명인데 비해 전남의 학급당 학생 수는 18.8명, 교사당 학생 수는 11.9명 등이다.

다섯째,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불용되는 예산도 최근 감소추세에 있으나 매년 4조 원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II.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방향과 전략

이와 같은 개혁의 이유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첫 번째 미션인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교육재정은 증가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바로 교육환경 개선, 교원 명퇴, 누리과정 운영, 무상급식 비용의 지출 등이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명퇴는 계속되어 온 일이지만 누리과정 운영과 무상급식은 재정여건이 좋을 때 새로 늘어난 사업이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금 이 사업들은 지방교육재정에 큰 짐으로 작용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입법과정을 거쳐 정착되었지만 무상급식은 아직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복지 비용의 증가가 교육재정 증가의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교육재정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미션인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인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환경 개선, 교원 명퇴, 누리과정 등 국가수준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배분체계를 분명하게 재정립한다.



둘째, 학생 수 감소 등 지역별 변동요인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학교 신설 시 인근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여 재배치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한다.

넷째, 학교를 통합하는 지역과 통합되는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매년 발생하는 이월·불용 예산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섯째,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통제를 강화한다.

이상의 개혁조치들은 국민의 세금이 교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



한 부문에 우선 배정되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일이다. 이상과 같은 개혁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일은 첫째, 이러한 변화가 단 한번(One Point)의 개혁이라기보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개혁이라기보다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선’과 같은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재원 배분 시 학생 수 비중을 중요하게 반영할 때, 재원이 급감하는 교육청이 있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물론 학생 수 비중은 교부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교부금의 18.5%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운영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변화의 규모가 크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의 95%는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변화를 소화하는 보정장치를 두어 급격한 예산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잡

한 이해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충북 속리산 중학교는 인근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하여 기숙형학교로 육성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학생들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축구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부모도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또한 전남 함평지역에서는 관내 사립중고등학교의 기부채납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4개의 중학교를 1개의 거점 중학교로 하고, 4개의 고등학교를 일반계 거점학교 1개와 특성화고 1개로 통폐합하고 신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시간을 가지고 지역 사회와 꾸준히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경제는 항상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부침을 계속한다. 하지만 교육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재원의 안정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좋은 전통이 계속되어야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ㄹ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방향과 전략, 성공요건



글

김용승

가톨릭대학교 부총장

교육부는 지난 7월 27일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안은 '고등교육을 통한 국가·지역의 경제·사회 변화 선도과 발전'을 비전으로 하고 또 '대학교육 체제 개혁을 통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와 대학의 미스매치 해소 기반 조성

방안,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확산 방안, 대학 취업·창업지원 기능 강화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의 본질적 역할이 연구를 통한 학문적 발전과 교육을 통한 전문적 지식의 전파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최근 학



문 간 통섭적 지식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또 ICT가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학 교육과 연구의 사회적 역할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즉, 공급자 및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교육과 연구 기능이 수요자 및 사회적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의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은 대학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대학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활용도가 높은 인재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에, 동 방안 등 그간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및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성공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I.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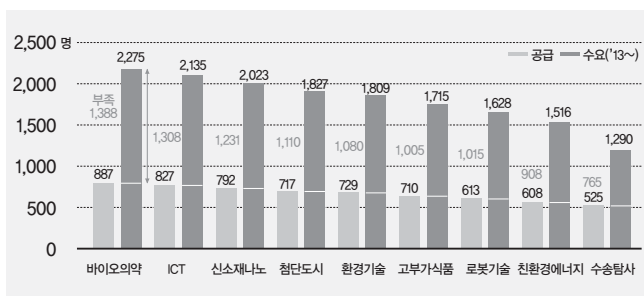
교육부가 발표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의 첫 번째 추진 배경은 거시적인 산업·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다.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기술수용성, 혁신성 등의 지표에서 한국의 경

우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에서 2014년 26위, 기술수용성은 2007년 7위에서 2014년 25위, 혁신성은 2007년 8위에서 17위로 그 순위가 하락하였다. 국가경쟁력의 순위 하락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장기적 번영을 위한 제도 및 제반요소가 점차 빈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수용성과 혁신성의 순위 하락은 기존 기술을 흡수 활용하는 기업의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은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환경 하에서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인적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학의 우수 인적자원의 공급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증대 역시 절실하다. 현재 대학 수와 학과 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지만, 학생들의 높은 전공불일치도, 낮은 전공취업률, 하향 취업으로 인해 진로 선택과 기술 습득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역 산업의 수요와 대학 전공분야의 불일치로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고급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담당할 바이오의약, ICT, 신소재나노, 첨단도시, 환경기술, 고부가식품, 로봇기술, 친환경에너지, 수송탐사 등의 분야에서 인력공급의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림 1] 9대 유망분야 장기 인력수급 전망(SERI)



주: 각 수치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인력 수요와 공급

이올러 2014년 현재 대학생들의 전공불일치자 비율이 50.3%

에 이르고, 사회 및 산업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학 교육과정으로 인해 기업 채용 후 재교육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큰 것이 현실이다. 201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기간은 18.3개월, 재교육 비용은 1인당 약 6천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재에 대한 사회의 수요와 대학의 공급간 미스매치가 커서 국가 및 지역의 창조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II. 추진 방향과 전략

1.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기반 조성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기반 조성부문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개선, 사회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학과 간 정원조정 지원 사업, 인문학 진흥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개선안에는 현행 6개 계열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완하여 전공 전망을 35개 중분류 이하로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중분류 인력수급 전망에서 제시되는 통계치는 향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사업) 등을 통한 학과 간 정원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학과 간 정원조정 지원은 2016년도에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PRIME 사업은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과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뒷받침할 교육의 내실화를 선도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해당 대학에 평균 50억~200억 원(최대 300억 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



이다. PRIME 사업은 양적 조정과 질적 조정으로 구분되며, 양적 조정은 학사구조 개편의 경우 대학 간 정원교환, 대학 내 새로운 학과 신설과 학과 통폐합, 학문 간 융복합, 캠퍼스 간 정원 조정 등이 있으며, 학사제도 개선의 경우 유동적 정원제와 자유 학부제,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이 있다. 그리고 질적 조정은 취업 약정형/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 등 현장실무 능력 제고, 다양한 기초학문 학업 이수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 다전공 활성화,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등 문제해결형·통섭형 인재 육성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와 국가발전전략의 토대로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인문교양교육 확대·내실화와 함께, 인문학 전공 학생들에게 코딩·디지털·기초과학 교육 등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며, 또 인문학 전공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미래 직업·분야들을 안내할 계획이다.

2.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부문은 대학과 지역 중



소·중견기업 간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전략, 학교-기업 공동 운영 교육과정 체계를 활성화하는 전략, 성인학습자 계속교육·재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학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전략은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대학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권역별 '산학협력중개센터'를 통한 산학협력체계 확산 방안, '학교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연계 운영 방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방안 등으로 추진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별 핵심 산업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7월에 체결된 울산혁신센터, 교육부·해양수산부, 국립대학교(11개교), 기업·연구원(25개소) 간의 지원·협력 업무협약은 그 사례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5대 권역별 산학협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간 창업동아리 교류, 산학협력 인프라 공유, 대학생들의 작품·아이디어를 기업에 이전하는 경매식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등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기업 공동운영 교육과정 체제 활성화 전략은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추진 방안, 장기현장실습제 및 현장실습학기제 확산 방안, 대학-지역 산업체 간 계약학과 설치·운영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지난 7월에 16개 전문대학을 Uni-Tech 육성대학으로 선정·지정하였으며, 지난 8월 중순에는 권역별로 1개 대학씩 전체 5개 대학을 장기현장실습 시범 우수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맞춤형 학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 맞춤형 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졸업생에게 협약 기업으로의 취업을 보장 또는 우대하는 것으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채용약정 기반 현장실습학기제 등이 바로 사회 맞춤형 학과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기업과 지역 대학 간 연계를 통해 사회 맞춤형 학과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영토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이 성인학습자와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성인학습자 계속교육·재교육 체계 구축 전략은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등 대학의 역할 확장 방안, 전문대학의 재직자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은 대학이 선취업-후진학자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체제로 개편하여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계속교육·재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전문대 재직자 직업교육 기능 강화 방안은 전문대-폴리텍 간 상호 강점분야를 활용한 단기 비학위과정을 공동운영하고 전문대의 재직자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내로 '전문대-폴리텍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우리의 성장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국제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일이 긴요하다.

3.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 기능 강화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 기능 강화부문은 취업·창업 지원 체계화 및 교육과의 연계 강화 전략,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전략 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며, 취업·창업 지원 체계화 및 교육과의 연계 강화 전략은 현재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인력개발센터, 청년고용센터, 대학 기업가센터,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등의 다양한 취업·창업지원 기구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또 미국의 'OUE(Office of Undergraduate Education)'과 일본의 '커리어 교육'을 참고하여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학생 진로·취업·창업 지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부모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 등을 통해 진로·취업·창업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전략은 현재 많은 대학들이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현장실습,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사업 등을 통해 해외취업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수 교육프로그램 및 해외취업 성공사례 등을 발굴·확산하고, 해외진출 관련 교양강좌의 개발,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해외취업 동아리 활성화,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과

정 및 현장실습과정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 실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할 경우, 지방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미충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경영 어려움과 함께 학생, 학부모의 직접적 피해 및 연계된 지역사회, 산업경제의 급격한 위축, 나아가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정부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최근 결과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뿐 아니라 앞서 기술한 인력수급 mismatch 해소 기반의 조성,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기능 강화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객관적으로 각 대학의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등 차등적 구조개혁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컨설팅을 통한 학사구조 개편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 위한 목적으로, 양적 조정 뿐 아니라 질적 개혁까지 포함한다.

Ⅲ. 향후 과제와 성공요건

최근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방향을 사회수요에 부응하고 또 미래의 한국사회에 적합한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은 교육부가 대학교육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않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교육 방향의 전환을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논란거리를 선형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의 본질적 역할이 학문적 발전과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의 역할이 과거와는 달리 학문적 발전과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 이외에도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대학 졸업자의 90% 이상이 학문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학문분야 이외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교육부는 비수도권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대학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미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많은 대학은 이러한 사실을 감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부의 각종 정책을 비수도권에 불리한 것으로 이해하는 정서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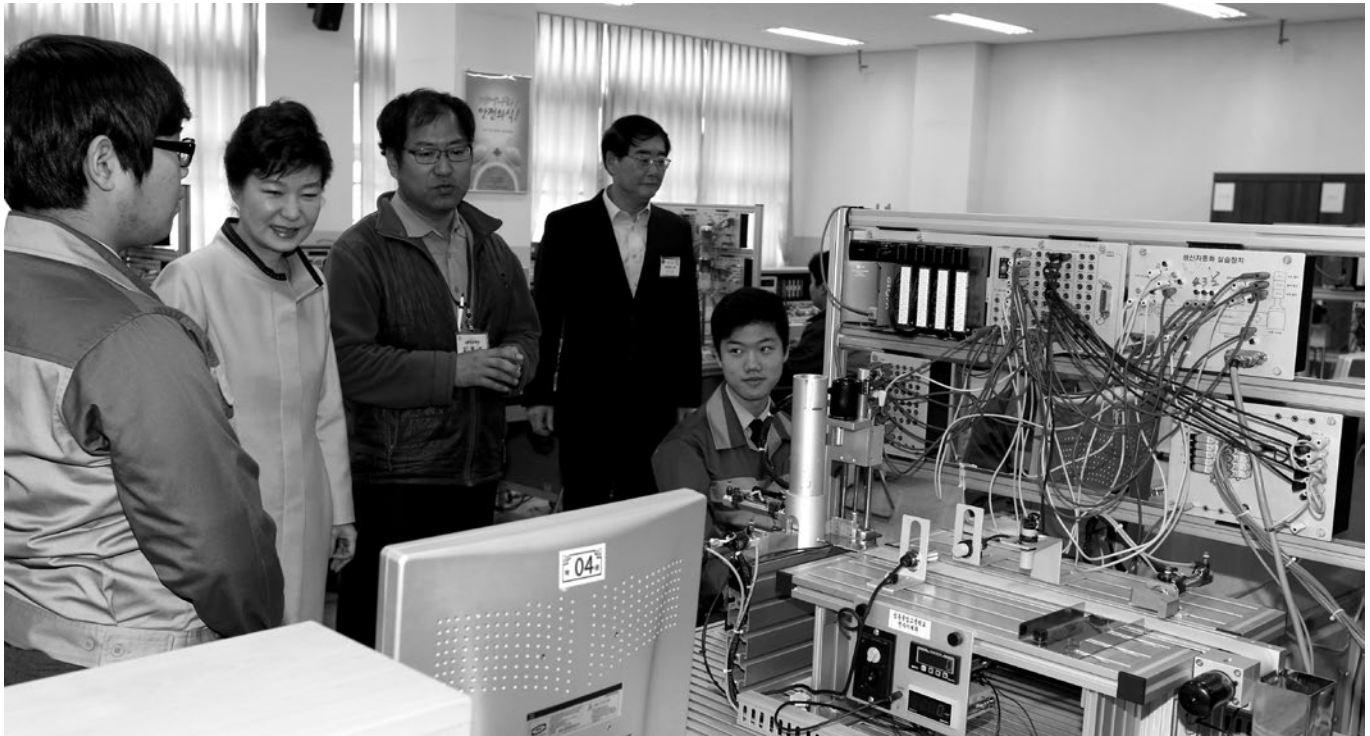
셋째, 대학이 교육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요인 중의 하나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책방향과 평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대학의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대학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PRIME 사업과 인문학 진흥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의 골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부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사회수요가 많은 공학계만을 위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인문학 진흥 등 학문적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인문학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창조경제의 토대를 이루며 또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학문분야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인문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과제의 해결과 더불어, 교육부와 지역사회, 대학, 그리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 필요하며 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이의 실현과 추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일·학습병행제 확산, 추진 방향과 전략, 성공요건



글

정태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진로교육연구본부 본부장

I. 일·학습병행제의 취지와 추진 동향

1. 도입 취지

일·학습병행제는 청년층의 취업률 제고와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취업예정 청년과 재직 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업교육훈련제도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교에서의 전공교육 완료 후에, 산업체에 취업하였던 과거 제도와는 큰 차이점을 갖는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과 스위스 등 주로 독일어권 국가에서 오랜 동안 운영해 온 '듀얼 시스템(Dual System, 이원적 교육훈련체제)'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이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실업률 완화, 숙련인력의 육성을 통한 상품의 고품질화와 부가가치 제고,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추구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14 : 1). 우리 정부가 도입·확산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의 궁극적인 목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14. 9. 30)' 중 다음과 같은 제안 이유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제안 이유 〉

국정과제인「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스위스·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인 듀얼시스템을 한국현실에 맞게 적용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확산 중에 있음.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일·학습병행제의 성공적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추진 동향

박근혜정부는 72대 국정과제[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와 75대 국정과제[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를 통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¹⁾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고졸 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 취득 인프라 구축', 그리고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개편 및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4월 20일 [능력중심사회 조기 조성

1)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기준.

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학생 단계 별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표 1]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

미국	영국	일본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 + 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전문대 단계〉 고교 + 전문대 통합교육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Uni-Tech)	전문대 중심 고교과정 통합 운영
〈대학교 단계〉 4년제 대학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제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월)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참여

주) IPP :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이 밖에도 재직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대학의 성인학부(학령기 학생 중심으로 설계된 학사시스템 등을 성인 친화적으로 개편·운영하는 단과대학 형태) 체제로의 학사시스템 개편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월 20일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할 것을 밝히고, 2015년 8월 6일에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8월 6일)의 후속조치

〈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2015. 8. 6.) 중 일·학습병행제 확산 관련 내용 〉

..... 정부는 교육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 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로 2015년 8월 12일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을 발표하면서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과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하였다.

II.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운영 동향

일·학습병행제는 산업체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하는 '재직자 일·학습병행제'와 취업 전 학교 학생에게 산업체 현장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학생 일·학습병행제'로 구분된다. 후자 중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학교와 산업체를 오가며 현장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은 2016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함께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또한 정부가 2015년 7월 8일에 발표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방안은 일·학습병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가 2015년 7월에 발표한 '2015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선정계획(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추진 배경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의 핵심 개념인 도제식 직업교육에 대해 유럽직업훈련연구센터(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는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기업 현장과 교육기관/훈련센터 등에서 교환적(alternating)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는 스위스의 도제식 직업교육이 추구하는 성과(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입직, 청년취업률 제고, 제조업의 경쟁력 확대 등)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참고로 2013년 기준 15~2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스위스가 62.9%이고, 독일은 46.6%임에 비해, 한국은 24.8%에 불과하다.

한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은 그간의 학교중심 직업교육의 문제점이었던 교육과정의 현장성 부족 문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이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2. 추진 경과

정부는 2014년 9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초기에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로 명명) 시범 도입·운영계획을 발표한 후,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1월에 9개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시범학교(인천기계공고 등)로 선정하여 발표한 후,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체 관계자의 제도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5년 3월 ‘도제학교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산업체 대표자 국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2회에 걸쳐 독일에서 실시한 이 현장연수에는 총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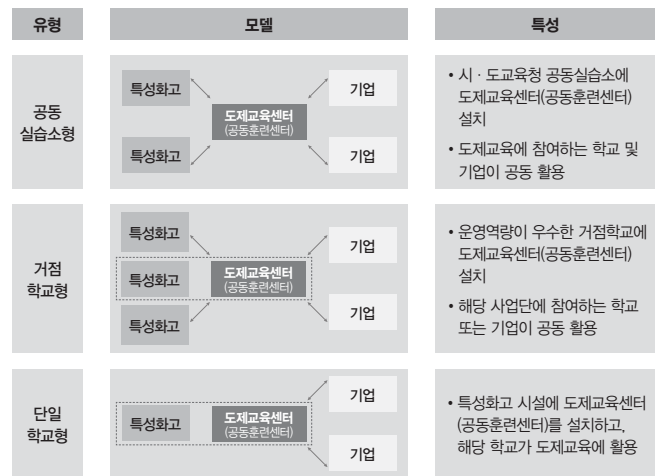
한편 정부는 전국의 산업단지공단을 도제학교 학생의 현장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이들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2월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2015년 4월 20일에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급별 일·학습병행제의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고, 2015년 7월 28일에는 최종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확대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3.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모형은 기존의 특성화 고교에서 운영하였던 직업교육과 다음 측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첫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지역 및 학교의 특징·여건에

2015년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9교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 모델 창출 • 하반기 15개 사업단(41개교) 내외 추가 선정
2016년 (확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50개교 내외 운영 •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반 마련
2017년 (전면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에서 운영 • 향후 상업, 서비스 분야 특성화고로 확대 추진



[그림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공동실습소 운영 모델

따라 다음과 같은 도제교육센터 운영 모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둘째, 한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기초교육은 학교의 교사가 담당하지만, 도제교육센터에서의 실무교육은 기업현장교사 ‘명장’ 교사 등이, 그리고 기업 실무교육은 기업현장의 고숙련 기술자가 교사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산 사업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하여 전국의 산업단지별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력 양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발

- (일간정시제) 하루 중 오전에는 학교, 오후에는 도제교육센터 또는 기업
- (주간정시제) 1주일 중 1~2일은 학교, 3~4일은 도제교육센터 또는 기업
- (주간정시제) 1학기 중 1주~2개월은 학교, 1주~2개월은 기업 또는 도제교육센터

굴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이상에서의 차별성 확보를 통해 정부는 산업체와 학교가 하나가 되는 산학일체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체제 내에서 산업체는 일터만이 아닌 학습 공간이 되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산업체에서 배우면서 일하는 ‘순환교육체제 (Recurren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에 참여하게 된다.



III.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성공요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일까? 첫째, 이 사업은 취업 희망 청년에게 스펙 준비보다는 재학시기에 일하고 배우면서 산업체에서 통용되는 현장기술을 습득한 후 조기에 취업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산업체에게는 스스로 원하는 현장실무형 인재를 직접 양성하면서 불필요한 신입직원의 재교육 비용²⁾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특성화 고교의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공급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다. 넷째, 정부의 입장에서 그간 학교교육 따로, 취업 따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산학협력에서 한 단계 더 나간 산학일체형 직업교육훈련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한 성공요인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주무 장관의 지속적인 정책 리더십 발휘

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을 국정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2014년 1월에는 스위스의 베른 상공업직업학교를 방문해 직업교육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창조경제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도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어 2015년 1월 20일의 신년 기자회견과 2015년 8월 6일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확산을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총리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세부 실천 정책을 발표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물론 사업 참여 관계자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화를 가졌다.

외국 학자(예 : Mason, Edward S. et al., 1980)는 1960~70년대 한국의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정책이 성공한 요인 중의 하나로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들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이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대통령과 주무 장관의 적극적인 정책 리더십 발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 2015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비는 1인당 6,218만원



2. 법령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제도적 체계 확립

정부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이고, 교육부도 도제학교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그간 시·도교육청의 총 예산 중 직업교육관련 예산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시·도교육감의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 및 의지 부족과 보편적 복지 사업(무상급식, 누리과정 운영 등)의 확대에 의한 예산 소요 증가 때문이다(이광호, 2015 : 52-53).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10월~2016년 12월 사업기간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215억에 더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 285억(사업단별 최대 20억 원-시설장비비, 운영비-지원)을 추가하여 약 500억 원을 지원하는 일은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다. 이 같은 협력 부처 간의 협력적 예산 지원은 사업의 성공 여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을 것이다.

교육부와 노동부의 협력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 및 기관의 명확한 역할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교육 측면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 지원, 실습·기자재 확충 지원, 참여 교사 지원, 참여 학생의 학습성과 제고, 도제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에 필요한 방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 지원과 채용 연계 측면에서 현장실습 제공 산업체의 알선,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근로여건 감독, 현장실습 완료 후 산업체 채용 연계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연구기관은 사업자문과 연구기능 수행 측면에서 도제학교 및 산업체 대상의 전문적 자문 제공, 연차별 사업성과 분석, 각종 DB 관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 사업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완 등의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3. 산업체와 학생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협력체제 구축 지원

산업체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통한 현장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NCS 기반 인사관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이들의 장기근속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실무역량을 획득한 후에 조기에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하고, 이후 재직단계에서 지속적인 경력개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산업체와 참여 학생이 상호 이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4. NCS 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상의 장애요인 확인 및 개선 지원

사업 내에서 산업체와 학교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이론 및 기초실습 교육과 산업체에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산업체에게는 'NCS 기반 교육과정'이 생소한 개념이 될 수 있고, 학생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들 사안이 중요 과제로 제기될 수도 있다. 한편 학교의 교사도 'NCS 기반 교육과정'의 운영과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활동에 애로를 느낄 수도 있다.

이외에도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에서의 탈락생 문제, 과정 이수 후 타 회사(특히 대기업)로의 이동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이외에 측면에서 사업 참여 학생의 군복무 및 제대 후 복직 문제, 참여 학교 교사 우대 방안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문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과 타 일·학습병행제 사업과의 연계 강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밝힌 타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사



업 참여 졸업생이 취업 후에 계속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정책' 및 '성인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도입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연계는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든지(Whoever), 언제나(Whenever), 어디서나(Wherever), 평생에 걸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평생학습사회의 이념 하에서, 청년과 근로자가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계속직업교육훈련 체제(CVET: Continu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를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청년 시절의 꿈과 끼를 살려준 교육의 결과로 중년시절에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선진국들은 학교 보건교육과 방역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글

장창곡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I. 학교보건과 학생건강

학교는 신체적·정신적 성장기의 아이들이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장소로 감염병과 같은 전염성질환이 발생하면 빠르게 전파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

들에게 발생한 감염병은 가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건강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건강습관이 평생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교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학교보건의 세 가지 기본요소는 보건교육, 건강서비스 및 학교환경이다. 즉, 보건교육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건강서비스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긴급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실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이며, 학교환경은 학생들이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은 학생들이 건강한 행동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가지도록 하며, 건강한 학교환경은 학생들이 건강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다.

보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1954년부터 1962년까지 독립과목으로 교육되다가 중단된 이후 2009년부터 정식교과목으로 다시 채택됨으로써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해졌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보건교육의 내용은 총론에 해당하는 일상생활과 건강, 질병예방과 관리, 약물 오·남용 및 흡연·음주 예방, 성과 건강, 정신건강, 사회와 건강, 사고예방과 응급처치의 7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학교보건 기본방향에 감염병 예방교육, 성교육, 흡연 및 음주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시행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감염병 발생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보건의 접근은 우선 감염자가 타 학생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과, 다양한 감염경로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학교시설의 방역 및 학생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건강한 보건행

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학교보건의 주관부서는 전적으로 교육부 소관이지만 내용의 특성상 보건교육은 교육부, 건강 및 보건의 보건복지부, 학교환경은 환경부, 그리고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지원청 및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는 보건실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보건문제에 대한 긴급처치는 물론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의 실시, 연간 학교보건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학교환경위생 및 학생안전관리업무까지 맡은 경우가 있으며, 또한 가끔 SARS(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MERS(중증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관련된 모든 업무가 보건교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학교보건관련 업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가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건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학교 보건교육 및 학교방역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미국

미국에서의 학교보건의 발달과정은 1935년 미국 체육교육위원회의 보건교육분과에서 학교에서의 보건관리를 위한 3가지 구성요소를 '학교보건교육', '학교보건서비스' 및 '건강한 학교환경'으로 설정하였고, 1987년 Allensworth & Kolbe가 학교보건



의 구성요소를 위의 3가지 요소 이외에 '체육교육', '학교급식서비스',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및 가족의 참여', 그리고 '교직원의 건강증진' 등 5가지를 추가하여 총 8개의 구성요소로 확대하였다. 즉, 학교보건은 성인기의 불건강한 보건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보다 아동기에 건강한 보건행태를 형성시키는 것이 보다 쉽고 효과적이라는 것과, 학교는 보건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고 평생 건강습관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유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PreK-12)까지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거나 요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45개주, 중학교에서는 42개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43개주가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교육 교과과정은 질병통제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청소년 및 학교보건 분과(DASH, Division of Adolescent and School Health)에서 국가보건교육표준(NHES, The National Health Education Standards)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90.2%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NHES는 각 주의 교사, 공무원 및 정책입안자들이 교과과정을 설계하거나 선택하는데 있어서 교육자원을 할당하고, 학생들의 성취와 발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1995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2007년에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NHES의 내용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과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PreK-2, 3-5, 6-8, 9-12 학년별로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NHES는 보건교육에 있어서 교과과정의 개발 및 선택, 교육 및

[표 1] 국가보건교육표준(NHES)의 표준 및 수행 지표

표준	목표 내용
1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관련된 개념의 이해
2	건강행태에 대한 가족, 동료, 문화, 미디어, 기술 및 기타 요인의 영향 분석
3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명확한 정보,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4	건강을 향상시키고, 위험을 피하고 건강위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 간 소통기술의 사용
5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사-결정 기술을 사용
6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목표-설정 기술을 사용
7	건강-향상 행위와 건강위험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
8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건강을 옹호

출처: CDC(2007), The National Health Education Standards, available at <http://www.cdc.gov/healthyyouth/sher/standards/index.htm>

학생평가를 위한 기본 틀로서 [표 1]과 같은 8가지 표준과 각각의 표준에 대해 [표 2]와 같이 PreK-2, 3-5, 6-8, 9-12 학년별로 수행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최신의 보건교육 교과과정에는 1) 기능적 건강 정보 교육(필수 지식), 2) 건강한 보건행태를 지지하는 개인의 가치와 신념의 형성, 3) 건강한 생활습관에 가치를 두는 집단적 규범의 형성 및 4) 건강을 향상시키는 보건행태를 채택, 실천 및 유지하기 쉬운 필수 보건기술의 개발을 강조하는 연구결과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주로 교육되는 보건내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성, 감염병 예방, 상해예방과 안전, 영양 및 다이어트 행태, 기타의 성 매개 감염병(STD), 신체 활동과 피트니스, 임신예방, 자살예방, 흡연예방 및 폭력이다.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은 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보건교육학사 학위를 가져야 하거나, 보건관련 전공을 하고 교육학점을 취득하거나 주에서 제공하는 보건교육교사



인증서, 자격증 및 확인서를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는 학교의 보건교육을 감독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보건교육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보건교육코디네이터의 학부전공을 살펴보면 43.2%가 보건교육전공자이며, 24.3%가 체육교육, 5.4%가 다른 교육, 5.4%가 생물학 또는 기타 과학, 5.4%가 간호학, 그리고 16.2%가 다른 전공자이다.

학교에서 독감 등의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CDC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에서는 이 권고안을 따를 뿐 아니라 학교의 건물과 책상에 대한 소독과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2] 표준 8의 학년별 수행지표

구분	내용
유아부터 2학년	
8.2.1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요구
8.2.2	동료로 하여금 긍정적인 건강 선택을 하도록 격려
3학년부터 5학년	
8.5.1	건강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8.5.2	긍정적인 건강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격려
6학년부터 8학년	
8.8.1	특정 주제에 대해 건강-향상 견해를 피력하고, 정확한 정보로 그것을 지원
8.8.2	다른 사람이 긍정적 건강 선택을 하도록 어떻게 영향을 주고 지원하는지 시범
8.8.3	건강한 개인, 가족 및 학교의 옹호를 위한 협동작업
8.8.4	다른 청중을 위해 건강 메시지와 소통기술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 확인
9학년부터 12학년	
8.12.1	건강-향상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정확한 동료와 사회적 규범 사용
8.12.2	다른 사람이 긍정적 건강 선택을 하도록 어떻게 영향을 주고 지원하는지 시범
8.12.3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옹호자로서 협업
8.12.4	특정 목표의 청중을 위한 건강 메시지의 작성과 소통기술의 채택

출처: CDC(2007). The National Health Education Standards, available at <http://www.cdc.gov/healthyyouth/sher/standards/8.htm>

첫째,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이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고한다.
둘째,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이 병원균의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적 행동을 매일 취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셋째, 환자가 발생하면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육한다.

넷째, 학교는 주정부 및 지역보건소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한다.

Ⅲ. 일본

일본의 학교보건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보건활동을 말하며, 아동과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상의 배려와 건강에 관한 교육을 포괄하고 있다.

보건교육은 보건지도와 보건학습으로 분류되며, 보건지도는 개별지도와 집단지도 등이 포함되고, 보건학습에는 교과로서의 보건학습, 관련교과에서의 학습 등이 포함된다.

소학교(초등학교)에서는 3~6학년에 체육과의 보건영역에서 즉, 3,4학년에 8단위시간 정도, 5, 6학년에 16단위시간¹⁾ 정도를 담당 및 양호교유²⁾가 교육하며, 교육내용은 1)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에 좋은 생활, 2) 신체의 발육·발달, 3) 마음의 발달과 불안 및 괴로움에의 대처, 4) 부상방지 및 간단한 응급처치, 5) 질병에 방이다.

1) 단위시간은 50분을 의미함. 2) 양호교유는 우리나라의 보건교사에 해당함



중학교에서는 3년간 보건체육과의 보건분야에 48단위시간 정도 즉, 1학년에는 12단위시간, 2학년에는 24단위시간, 3학년에는 12단위시간을 보건체육 내지 보건면허증 소지자와 양호교유가 교육하며 교육내용은 1) 심신기능의 발달과 마음 건강, 2) 건강과 환경, 3) 상해방지, 4) 건강한 생활과 질병예방이다.

고등학교에서는 보건체육과의 보건과목을 2단위¹⁾ 즉, 1,2학년에 각각 35시간을 보건체육 내지 보건의 면허증 소지자와 보건교유가 교육하며 교육내용은 1) 현대사회와 건강(건강을 생각하는 방법,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정신건강, 교통안전, 응급처치), 2) 생활을 통한 건강(생애단계별 건강, 보건의료제도와 지역보건 및 의료기관의 활용), 3) 사회생활과 건강(환경오염과 건강, 환경과 식품건강, 노동과 건강)이다.

일본의 학교방역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조도, 환기, 소음, 진동, 실내공기의 질, 배수, 수영장, 화장실

관리와 음용수, 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예방 및 위생해충의 관리를 위한 소독 등 물리적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경위생검사의 실시와 사후조치 등에 관해서는 학교약사의 지도와 조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은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 2, 3종 감염병의 발생 시 등교의 중지나 예방접종을 명한다.

IV. 영국

영국의 보건교육은 2000년 이후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인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PSHE) education)’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개인, 가족, 사회 및 경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식, 이해, 태도 및 실천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데 있다.

PSHE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핵심주제는 1) 건강과 안녕, 2) 관계, 3) 보다 넓은 세상에서의 삶이며, 포함된 주요 내용은 ① 알코올, 흡연 및 약물, ② 개인건강, ③ 왕따, ④ 시민의식, 민주주의 및 인간의 권리, ⑤ 경력 및 일, ⑥ 개인재무, ⑦ 가족과 관계, ⑧ 성교육이다.

PSHE 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각 급 학교에서 교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Key Stage 1,2(5~11세)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약물교육, 성과 관계교육, 및 건강한 신체활동과 식습관의 중요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Key Stage 3, 4(11~16세)에는 성과 관계교육, 약물교육을 의무적으로 학습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각 급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은 교사들이 전문가교육과정인 CPD(continued professional development) 과정을 이수하여야 교육자격이 부여된다

V. 요약 및 시사점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교육 현황과 미국, 일본 및 영국의 보건교육 및 방역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에서는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보건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서로 협력하여 학교 급별 및 학년별로 알아야 할 지식과 가르칠 내용을 규정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교육자는 보건교육전공자나 타전공자라 하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획득하면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의 방역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결과 소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과 대응으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었고, 통상적인 감염병 관련 보건교육, 지역보건기관과 연계하여 예방접종 및 등교증지 등을 시행하였다.

보건교육은 속성상 건강지식의 얇과 건강행동의 실천이라는 교육과 보건의 목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전문가와 보건전문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효과적인 보건교

육과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보건당국의 협력이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근거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 급별 학년별 보건교육 내용의 지속적인 개발과 교육효과의 평가, 보건교육 인력의 교육, 기타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의 개발을 수행하는 별도의 학교보건 지원기구의 설립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한국교육개발원(2008). 영국 인성, 사회성, 보건교육(PSE) 보고서.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 제13호. 경성문화사.
2. CDC(2007). The National Health Education Standards, Available at <http://www.cdc.gov/healthyyouth/sher/standards/8.htm>
<http://www.cdc.gov/healthyyouth/sher/standards/index.htm>
3. DHHS & CDC(2013). Results from the school health policies and practices study 2012. National Center for HIV/AIDS, Viral Hepatitis, STD, and TB Prevention, Division of Adolescent and School Health.
4. Health Education England(2015). Health Education England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3/14. The NHS constitution,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5. Department for Education(2013). Guidance 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PSE) education,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ersonal-social-health-and-economic-education-pshe/personal-social-health-and-economic-pshe-education>
6. 高石昌弘 외(2008). 學校保健 マニュアル. 南山堂.

주요국의 교원평가 사례와 시사점



글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I. 서론

교직사회에서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시사하듯이, 교육활동에서 교원의 질 관리는 핵심적인 교원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주요국에서는 오랫동안 교원의 전문

성 개발 및 신장 촉진을 유인하는 교원평가시스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교원평가시스템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교육정책입안자나 국가와 지역사회로 하여금 학교의 책무성을 증진하고 교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교육개혁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개발 및 동기 유발을 위한 다양한 교원인사정책들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평가시스템 혁신에 몰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장 교원들이 학생교육지도에 있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향상 및 유지시킬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교원평가시스템이다. 이에 대한 노력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꾸준하게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의 교원평가시스템의 운영실태를 평가의 목적과 내용, 평가방법과 시기, 평가과정, 평가자 및 평가결과 활용을 중심으로 진단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원평가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미국의 교원평가시스템

미국의 교원평가는 모든 주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교원평가 체제는 없고 주마다 나름의 교원평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교육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원평가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버지니아주(Virginia,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평가의 일반적인 목적은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성공적인 성취 공헌도, 학급과 교사의 직무에 대한 책무성 강화, 긍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기여, 전문성 개발 기능에 두고 있다. 또한 그 밖의 목적으로는 개별 교사의 직무수행 기준 명료화 및 교사 직무수행과 학생의 학습발달간의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교원평가의 목적은 대체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형성적 기능) 및 인사행정 결정 기능(총괄적 기능)이 동시에



고려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주 정부의 교원평가 개선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은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이다. 평가위원회는 교사, 행정가, 조합의 대표, 교장, 학부모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며, 이 위원회에서 교원평가체제를 개발하는데 평균적으로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교사평가내용은 교사 개개인이 담당해야 할 직위의 자격요건이나 직무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 직위안내서를 활용한다. 직위안내서에는 교원 개개인의 직위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직위 명칭, 직위상 중요 기능과 책임, 구체적인 업무, 권한 등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학력, 경력, 기술, 지식, 능력, 일에 대한 추진력, 가치관단력, 인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버지니아주(Virginia,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의 교사평가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8개 지표), 수업계획 수립(5개 지표), 효과적인 수업 전달(7개 지표), 학생 학습에 대한 평가(7개 지표), 학습환경 조성(8개 지표), 전문성(9개 지표), 학생 학업의 성장(4개 지표) 등 7가지 직무수행 기준을 기반으로 세부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교사평가의 내용은 직무수행을 기반으로 하여 보통, 능숙, 개선, 부적합의 4단계 척도로 평가된다.

버지니아주 교사의 경우에는 수업관찰, 자료수집, 회의, 설문지, 자기평가서 등의 방법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다. 교사의 평가시기는 교사임용 후 최초 3년간 매년 실시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1회씩 실시한다. 단 조건부 재임용 시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토록 한다. 교장의 경우에는 현장 관찰과 자료수집, 회의, 학교장에 대한 의견조사서, 자기평가서 등을 통해 평가한다. 특히 현장 관찰과 자료수집에는 관찰보고서, 회의내용 요약, 학생 성취도 자료, 교사평가 서류, 재정 감사, 특성화 프로그램 자료, 메모 및 회의의제, 학교간행물 및 안내책자, 학교계획서, 개별화교육계획, 직원 및 학부모 의견조사자료, 학생기록 등을 참고로 하고 있다.

교사 평가자는 수업관찰, 면담, 서면자료, 구두자료 등 평가자료를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면담회의를 통해 실시된다. 교사평가 과정은 평가절차 검토, 자기평가서, 목표설정회

의, 평가자에 의한 교실관찰(공식적 및 수시로), 중간평가회의, 포트폴리오 수집, 학생 설문조사, 중간 및 최종평가회의의 순으로 진행된다.

교사는 학교장이 평가하게 되는데, 학교장은 다른 평가자(부속학교의 교장, 교감 등)를 지명할 수 있다. 교사평가 결과는 7가지 직무수행 평가기준에 대한 적합여부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교사에게 제공되며, 이 평가결과에 따라 재임용 추천, 조건부 재임용 추천, 재임용 취소 등이 결정된다. 아울러 교사 직무수행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직무수행 증진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해야 한다.

Ⅲ. 영국의 교원평가시스템

영국의 교원평가 역사는 1986년 교육법 개정, 1988년 교육개혁법 제정, 1991년 교원평가 규칙의 제정으로 완성되었다. 교사평가의 법적 근거는 1986년 법(education act 1986 section 49)을 토대로 하여 1991년 학교 교사평가 규칙(school teacher appraisal: regulations and circular 12/91)이 제정되면서 교사의 근무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영국 교육법 제4조에 의하면, 교원평가의 목적을 교원들의 잠재성을 깨우치고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원들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교원 개개인이 자신의 전문적 발달과 경력계획을 가지도록 돕는 것, 교원배치가 교원 개인과 학교의 보완적인 요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Jones & Mathias, 1995). 또한 학교 교사평가 규칙 [The Education(School Teachers'



Appraisal) Regulations]에 의하면, 교사평가의 목적은 교사의 기술과 근무실적 향상, 교사의 전문적 성장과 장래계획 개선 지원, 미래의 발전 가능성 명료화,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사의 지원, 교사 인사행정 책임자에게 정보제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1년에 개정된 교육규정에 의하면, 교원평가의 목적은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교원평가의 목표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기초로 교사 스스로 정하고, 평가위원과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학교장은 매년 초부터 말까지 모든 교사들이 다음해 평가목표와 평가진술을 정하도록 한다. 교사와 평가위원간 평가안에 대한 미합의 시, 평가위원은 적절한 평가목표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교사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한다. 2개 이상의 학교에 소속된 교사는 각 학교의 방침에 맞게 평가목표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교사평가안은 교장, 평가위원 등의 동의 하에 평가주기 내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영국의 교사평가내용은 교육규정 제13조의 평가 계획 및 목표에 따라 교사 개개인이 해야 할 직무설명서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즉, 개인의 인성, 학급 내에서의 교수·학습활동 및 경영활동, 직무수행 결과 및 직무수행상의 문제, 학생과 동료교사 및 학부모 등과의 인간관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평가기준은 대부분 성취해야 할 행동적 용어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영국의 교사평가 내용 및 기준은 평가과정이 주로 면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에 평가의 목표와 내용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교원평가는 직무수행상의 애로나 실적 또는 만족과 불만족 사항, 재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한 정보수집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교사평가 내용과 기준은 계획과 준비(교육과정 관련 목표 설정, 개인과 집단의 요구조사, 다양한 자원 활용, 학습평가과정 계획, 교사와 학생 직무 기록), 교실조직과 관리(시간과 공간 이용, 학생 요구와 활동목표를 위한 다양한 그룹 조직, 활동간 자연스런 전환, 학생의 자기 훈련 조정, 아동 활동 전시), 교수기술(명확한 설명과 시점 및 피드백, 학생의 모든 활동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적절한 교수모델 사용, 명확한 이야기와 목소리, 다양한 질문, 다양한 방법의 피드백, 교과전문지식 확보, 학생 기대), 관계(아동의 말과 생각에 대한 관심, 학생행동 초점, 학생 참여, 학생의 과외활동 지원, 동료교사와의 협력, 교직원에 대한 관심, 학부모의 관계 형성, 교사의 일관된 행동과 기대 제공), 일반 사항(학생 보호와 안전 책임, 직무수행의 정확성, 일상적인 일에 최선, 전문성 개발 최선, 출근)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영역에는 세부 평가요소들이 구체화되어 있다.

교사평가방법은 주로 관찰에 의한 면담법(interview)이다. 면담은 평가실시 전 단계, 평가단계, 평가 후 단계에서 모두 활용되며, 면담의 목적은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상호간 평가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면담을 통해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교사평가의 경우에는 교장이 평가주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장평가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평가과정에는 교사 직무수행상 애로나 실적, 만족과 불만족 사항, 재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한 정보수집 내용을 포함한다. 교사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는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대체적인 교원평가 절차는 평가목표 설정, 수업관찰,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면담, 평가자의 전체 면담, 평가검토회의,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친다.

수업관찰은 연 1회 이상 실시되며, 평가면담에서는 교사의 수행력과 성취정도, 개선점, 그리고 평가안에 명시된 목표달성 정도, 훈련 및 개발의 필요성과 방법 등이 검토된다. 평가검토회의에는 자기평가와 더불어 평가결과와 보수연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평가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로 활발하게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평가보고서 작성 후 최종보고서는 학교장에게 전달되며, 학교장은 3년간 보고서를 보관한다.

교사평가 주기는 1년이며, 평가가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교사가 전근을 간 경우에는 평가주기는 다시 시작되며, 단기 계약교사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시기를 정한다.

교사평가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학교 모든 교사가 계약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임시계약직과 기간제 교사도 1학기 이상을 근무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이 된다. 정기적인 교사평가의 의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으며, 교사 평가자는 직근상급자로서 학교장이나 수석교사가 담당한다. 학교장이 학교교사 중 2-3인을 평가위원으로 정하거나, 교장 자신이 평가위원이 될 수 있으며, 수석교사 등 새로운 평가위원을 정할 수 있다. 수석교사가 지정한 경력 있는 교사가 평가를 할 수 있다.

교원평가 결과는 교사와 교장의 직무훈련 및 능력개발 연수에 반영하거나 승진 및 보수인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교사평가 결과보고서는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방교육청 등에 제공된다. 학교장은 교사 업무수행에 관한 조언과 결정권을 가진 교육관료나 그가 지정한 사람, 교사훈련 및 개발계획담당자에게 교사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평가자는 교장이 된다. 그러나 평가위원이 교장이었다면, 검토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재평가자는 평가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평가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재평가 시, 교장은 다른 교사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장이 평가위원이었다면 타 학교장의 교장 혹은 교장과 동등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임명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피드백 되며, 인사결정의 자료(능력개발 연수, 재계약, 보수, 해고 등)로 활용된다.

IV. 일본의 교원평가시스템

일본의 교원평가시스템의 역사는 1950년대 후반 근무성적평정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다가 2000년



4월 동경도교육위원회에 능력과 업적에 따른 새로운 교사평가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동경도교육위원회의 능력과 업적에 상응한 결과에 따라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교원의 자질능력 향상과 학교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능력과 실적에 의한 평가시스템은 5년이 지나면서 기존 평가시스템에 대한 반성으로 2006년부터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책무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새로운 형태의 목표관리 및 실적에 의한 교원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본의 목표관리 및 실적에 의한 평가시스템은 개별 교원의 능력, 실적, 의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여 능력을 개발함(목표관리평가)과 동시에 학교조직 차원에서 교원 협력에 의한 교육활동이 활성화(실적평가)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관리 및 실적에 의한 평가시스템은 목표관리에 의한 평가와 더불어 목표관리의 능력과 실적, 그리고 의욕 관련 요소를 직무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군마현의 목표관리에 의한 평가는 개별 교원이 당해 연도에 중점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을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달성 상황과 과정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군마현, 2009). 목표 관리는 계획→실천→평가→개선의 단계로 진행된다. 목표관리평가는 개별 교사가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직목표를 바탕으로 자기목표를 설정하여 그 달성상황을 1년 동안 평가하게 된다. 개별 교사는 1년 동안 자기 스스로 설정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미흡한 과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게 된다. 이후 교장은 개별 교사의 목표관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의 곤란도를

고려하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계획단계에서 개별 교사는 5월말까지 스스로 학교조직 목표를 근거로 해 설정한다. 이 때 교장은 당해 연도 학교교육목표와 학교경영방침 등을 모든 교원에 주지시키고 개별 교사들은 학교 교육목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면서 자기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개별 교사들은 학교교육목표와 학생들의 좋은 성장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 나간다. 개별 교사들은 당해 연도에 달성해야 할 목표와 자신이 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제시해야 하며, 담당학급, 학년, 교과, 과목, 분장 등의 직무분석을 통해 목표와 달성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직무분석은 설정목표와 개선 정도, 달성상황에 대해 몇 월 며칠까지 달성할 것인지를 기록해야 한다. 또한 학습지도와 학생지도 등에 대해서도 목표와 달성방법 등을 설정하고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학생의 모습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장은 교사가 설정하려고 하는 목표가 적절한 지에 관해 교사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학생의 학습 실태와 목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개별 교원과 면담을 통해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면담은 자기목표서를





제출할 때와 마지막에 최종신고서를 평가할 때는 의무적으로 면담해야 하며, 교사가 희망한다면 진행과정에서도 가능하다. 면담은 개별 면담을 기본으로 하지만 교원간 상호 이해와 계발을 위해 집단 면담도 허용하고 있다.

실천단계에서 교장은 6월부터 수업관찰 등을 통해 교사의 목표달성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한다. 교장은 교사의 근무상황, 의욕, 성과 등을 파악하고, 수업관찰 등에 나타난 점을 기록하여 최종 면담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장은 수업, 학교·학년 행사, 교무 분장, 동아리활동 등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획안과 준비 상황, 사후 대응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관찰 과정에서는 좋은 점과 느낀 점을 추후 면담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간평가는 10월경에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교사는 목표달성에 대해 S(100%), A(80% 이상), B(60% 이상), C(40% 이상), D(40% 미만)의 5단계로 구분하여 스스로 기입하고 교장과의 면

담을 통해 지도 및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평가는 차년도 1월말까지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기평가와 2월말까지 최종신고서를 가지고 면담을 하게 된다. 평가기준은 S, A, B, C, D의 5 단계에 의한 절대평가로 한다. 제1차 평가자인 교감은 수업이나 근무 상황 등의 관찰에 근거해 교직원 각자의 최종 신고를 검토해 필요에 따라 지도 및 조언을 기록하여 교장에게 제출한다. 교장은 교감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업이나 근무 상황 등의 관찰한 근거로 교직원 각자의 최종 신고를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지도 및 조언을 기재한다. 교장은 2월 말일까지 교사와 면담하여 목표의 달성 상황이나 1년간의 직무수행 상황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함과 동시에 차년도에 교사가 더 큰 의욕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조언을 한다. 이 과정에서 교감도 동석하도록 하고 있다.

실적평가는 개별 교사가 설정한 목표를 핵심사항으로 하여 직무 전반에 관해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교사의 직무내용은 학습지도와 학습지도 외(학급경영과 학생지도 등), 학교경영의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내용에 대해 능력과 실적, 의욕으로 세분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지도 직무는 도덕지도, 교과지도, 종합적인 학습시간으로 세분되며, 학습지도 외(학급경영과 학생지도 등) 직무는 특별활동(학급활동, 학생회활동, 학교행사, 그룹활동), 생활지도 및 교육상담, 진로지도 등으로 세분된다. 학교경영은 학년경영, 분장사무, 각종 위원회, 보호자와 지역주민 등의 협력으로 세분되고 있다. 직무수행 과정의 특성으로는 동료 교사들과의 지원과 협력, 근무자세로 세분하여 평가한다. 아울러 교사 직무내용별 평가 시 평가착안점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직무내용별 평가방식은 5단계 척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직무수행 수준을 우수(4점), 양호(3점), 미흡(2점)으로 제시



하고 있다. 우수 수준 이상은 5점이고 미흡보다 못하면 1점이다.

개별 교사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대평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학습지도의 능력과 실적, 의욕에 대한 가중치가 2배로 각각 10점씩 총 30점, 학습 외 지도와 학교운영의 능력과 실적, 의욕에 대한 가중치가 1배로 각각 5점씩 총 15점, 주변 동료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가중치가 3배로 15점, 근무자세 태도에 대한 가중치가 1배로 5점으로 전체 총점이 80점으로 구성된다. 개별 교사의 종합평가 합계점은 1등급(16-23점), 2등급(24-39점), 3등급(40-55점), 4등급(56-71점), 5등급(72-80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인재육성 및 능력개발의 연수이수 정보로, 교사의 인사 및 보수 처우에 반영하거나 우수 교사 표창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V. 우리나라 교원평가정책에 주는 시사점

평가는 사람이 존재하는 곳 어디서나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인 것처럼 주요국의 교직사회에서도 교원평가가 자연스런 활동의 하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국의 교원평가시스템은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주요국의 교원평가시스템의 운영실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의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는 평가의 주요 목적을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향상에 두고 있으며, 승진, 급여, 연수 등 다양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교원평가시스템의 법률적 근거를 명료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원평가와 관련한 대강의 지침을 확립하고 보다 세부적인 것은 주 정부와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평가 기준과 내용이 교사의 직무수행 중심으로 설정되어 학생지도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한 교직생활 전반을 종합적,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을 구체적인 용어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 내용 및 기준을 평가자나 피평가자 모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평가과정에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평가방법은 교원평가 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방법으로는 자기평가서, 수업관찰, 면담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과정을 다단계화, 체계화함으로써 평가 과정과 결과를 객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평가과정은 평가준비 단계, 평가과정, 그리고 평가결과로 구분하고 있으며, 평가자





가 피평가자와 상호 협의를 함으로써 평가를 피평가자의 자기개발 계기로 삼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평가방식은 학교 급별 및 과과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참관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자는 수업참관의 과정 속에서 해당 교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평가자인 교장과 교사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넷째, 평가자는 평가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학교장, 장학관, 수석교사/우수교사 등)이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 자신에 의한 자발적인 자기평가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가주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평가결과의 활용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개발과 신장을 위한 연수에 집중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 조치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이 도입된 지 6년차를 맞이하여 교직사회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교직문화 형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교직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평가운영모형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전제상(2004). 교원평가결과의 활용 가능성 탐색. 교육진흥 여름호. 제17권 제2호 통권 64호. 에듀토피아 중앙교육.

전제상(2009). 다원적 교원평가제의 일원화 가능성 및 방안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제 26권 제2호. 387-410.

전제상(2015). 교원평가시스템의 쟁점과 혁신과제. 한국교육학회 뉴스레터 통권 276호 Vol.50, No.3, 8-19.

Department for Education(2012). Teacher Appraisal and capability: A model policy for school.

Medley, Donald M. & Homer Coker, Roberts, Soar(1984). Measurement-Based Evaluation of Teacher Performance-An Empirical Approach. N.Y.: Longman Inc.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2012). Guidelines for uniform performance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teachers. Virginia board of education.

八尾坂修(2001). 現代の教育改革と學敎の自己評價. ぎょうせい.

敎員の評価システム調査検討委員会(2006). 敎員の評価の在り方について敎職員の人材育成評価制度.

新しい人事評価制度研究会(2006). 新しい人事評価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提言.

八尾坂修編著(2005). 『敎員人事評価と職能開発—日本と諸外国の研究』風間書房.

八尾坂修編著(2006). 『新たな敎員評価の導入と展開』敎育開発研究所.

群馬県敎育委員会(<http://www.pref.gunmajp/03/x0110001.html>)

文部科学省(<http://www.mext.go.kr>).

埼玉縣川口市(<http://www.city.kawaguchi.saitamajp/kbn/72010029/72010029.html>).

新瀉縣長岡市(<http://www.city.nagaokaniigata.jp/other/tiran.html#kyouiku>)



일본·호주·싱가포르의 유학생 유치전략



클
·

이기정

한양대학교 국제처장

I. 서론

전 세계 유학생 수는 1975년 80만 명에서 2000년 210만 명 그리고 2012년에는 450만 명으로 연평균 7% 이상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나타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두

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도 외국인 유학생 증가이다. 2006년에 32,557명이던 유학생이 2011년에 89,537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유학생 수가 감소하여 2014년에는 84,891명에 달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어학연수생 혹은 교환학생들과 같은 단기 방문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더욱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에 학위과정 유학생 수자는 63,653명에서 2014년에 53,636명으로 약 16% 정도 감소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유학생 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대안을 일본,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의 유학생 유치전략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유학생 감소 원인

우리나라 교육부는 2020년까지 2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Study Korea 2020 Project'를 발표하였지만 주변 환경의 변화로 목표 달성의 해를 2023년으로 연기하였다. 이는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국내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OECD(2014)는 유학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수언어(language of instruction), 교육의 질(quality of programmes), 수업료(tuition fees),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그리고 유학 대학의 학문적 명성, 학위취득에 걸리는 시간, 해외 학위인정 여부, 자국에서의 고등교육 기회의 제약, 자



국과 유학 대상국 사이의 지리적, 경제적 역사적 관계, 졸업 후 취업, 문화적 동기, 학점교류 정책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유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러한 유학 대상국 선택요인 중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이다. 2012년에 우리나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64%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에는 59%로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 교육부의 유학생 출신국 다변화 정책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중국학생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국가로 유학 선호가 급변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2020년까지 2,000만 명 감소 예상) 상대적으로 중국 내 대학 문호가 넓어져 유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둘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와 유학생 유치경쟁 국가들은 우수한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2020년까지 30만 명을, 중국은 2020년까지 50만 명을 그리고 싱가포르는 2015년까지 15만 명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장학 정책으로,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민 또는 취업 정책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 오려는 유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들의 유학생 관리 부실이다.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기숙사 제공 및 알선, 한국어 교육, 의료보험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기초적 유치 환경 조성은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의 국제화교육이나 유학생들을 배려한 교육과정 운영, 유학생 인턴



십 및 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

넷째, 외국인 졸업생의 취업률이 저조하거나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해가 2007년도이다. 이 시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2011년부터 중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이들에 대한 취업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이상의 유학생 감소요인을 OECD(2014)에서 밝힌 유학 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를 찾는 유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졸업 후 취업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Ⅲ. 해외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전략

1. 일본

1983년에 약 1만 명에 불과했던 일본은 당시 나카소네 총리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수용 태세 및 기반 정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유학생을 “미래에서 온 대사”로 칭하며, 해외 국가의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일본의 안전보장과 평화를 유지하며, 사회에서 지적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수업료를 30% 감면해주고, 정부와 대학 그리고 관련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1993년에 5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불법체류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1990

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및 “자격외 활동 허가” 제도를 시행하여 1994년부터 유학생 입국 및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1994년에서 1999년까지 5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가 5만 명 수준의 정체기를 겪게 되었다. 이후 일본어교육 관련 학습 장려금 예약 제도와 유학생 입국과 체류심사 기준 완화 정책으로 인해 2003년에 유학생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수적 증가보다는 양질의 인재 확보 및 상호 교류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유학생 입학 및 체류비자 심사가 다시 엄격해져서 2006년부터 유학생 수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 후쿠다 총리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에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5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3년에 168,145명 그리고 2014년에 184,155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계획의 실행 방안은 ① 일본 유학 홍보 ② 입시, 입국, 입학관리 개선 ③ 대학의 국제화 추진 ④ 유치환경 마련 ⑤ 졸업 후 수용 프로그램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요약하면, 일본은 유학생 수가 정체기에 이르거나 감소할 시기에는 이민 정책을 완화하였으며, 장학금을 확대하였고 무엇보다도 대학과 기업체가 협력하여 졸업 후 취업





의 문호를 넓히는 정책을 실행하여 유학생 수를 확대시켜 왔다.

대학과 기업체가 함께 유학생 취업을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인재 수입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도쿄대와 와세다대를 비롯한 12개 대학과 무역상사, 제조업, 운송 등 16개 대기업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로 유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으며 졸업 후에 일본 내 기업체로의 취업과 연계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25년 만에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감소를 걱정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유학생을 유치, 육성하여 일본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동하겠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 호주

호주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국제화교육을 위한 국가전략 방안(Draft National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은 호주 경제, 사회,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유학생 유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호주에서 취

업기회를 주는 것이 유학생 유치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여,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유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과정(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에만 2014년에 약 150,000명의 유학생이 등록하였다. 이는 VET에서 영주권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호주 이민국에서는 호주 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Skilled Occupation List), 그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점수화한 호주 전문 직업 목록(Employer Nomination Scheme Occupations in Demand List), 그리고 호주가 부족하게 느끼는 직업군 목록(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VET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한 유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 호주로 유학 온 학생 수가 역사상 최고로 많았으며 이를 통해 16.3억 호주달러의 경제적 이익과 약 13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단순히 2014년에 증가한 유학생 수로 인해서만 10억 호주달러의 경제적 추가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5,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켰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말레이인, 태국인, 영국인 등의 이민지들로 구성된 인구 450만의 작은 도시국가이다. 인구와 부족한 자원, 좁은 국토와 같은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에 특히 힘써 왔다. 1985년 경제적 침체기를 겪는 과정에서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적 토대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면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싱가포르는 우수한 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전략으로 삼아, 금융, 물류, 관광,



의료에 이어 교육산업을 차세대 전략 사업으로 지목하였다.

1998년부터 2007년 까지 10년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주도로 추진된 “세계 우수대학 유치 정책(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WCU)”은 1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10개를 싱가포르에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 시작된 ‘Global Schoolhouse’ 프로그램은 고등교육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중등교육기관까지 유치하여 싱가포르를 전 세계적인 Schoolhouse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시행되었다.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MIT, 존스홉킨스 의대, 시카고 경영대, 조지아 공대, INSEAD, 뉴욕대의 Tisch School of the Arts 분교 등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싱가포르는 외국 대학 유치에 있어 정부와 대학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행·재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개별 대학은 교육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는 외국 대학(원)을 접촉, 협상하고 유치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싱가포르를 교육허브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기관들의 종류와 역할은 다음과 같



다. 2003년 여러 부서를 통합하여 공동 정부기관으로 설립한 싱가포르 교육국은 싱가포르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국제 학생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 SPRING Singapore, 싱가포르 무역개발청(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싱가포르 교육부(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등으로 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은 세계 유명 교육 기관의 캠퍼스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관광청은 싱가포르 유학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SPRING Singapore는 싱가포르의 사립 교육기관들의 자격기준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와 같이 교육기관 및 학생 양측의 보호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무역개발청은 싱가포르에 설립된 학교들의 재정 지원 및 해외 캠퍼스 유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외국 대학과의 경쟁에 대비한 국내 대학 보호 육성 정책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국립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음과 동시에,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을 관장 및 교육기관 등록허가를 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싱가포르는 경제 금융, 법률 서비스, IT 등 지식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고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저출산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5까지 유학생 수를 150,000명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여 졸업 후에 싱가포르에 정착시키는 이민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노동청(Ministry of Manpower)에서는 전 세계 약 300개 대학 리스트를 발표하여 이 대학 출신 학생들에게는



TEP(Training Employment Pass)라는 특별한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 비자를 받은 유학생들은 싱가포르의 우수 기업에서 인턴을 경험하고 졸업 후에 이민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2003년에 67,000명인 유학생 수가 2009년에는 97,000명 그리고 2014년에 130,000명 정도로 급증하게 되었다.

VI. 결론 및 제언

일본,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의 유학생 유치정책을 살펴보면 각 나라 정부는 졸업 후 이민·취업 정책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우수한 외국인 인력양성은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 교육 그리고 취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교육부(2015)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양적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분야의 국제화, 경제적 상승효과 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통합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유학생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현황도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기초적인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도 유학생 유치에만 관심이 있고 졸업 후 취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유학생 졸업 후 취업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Study Korea 2020에서 목표로 하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법무부에서 2105년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우수 외국인

들에게 국내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체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외국인 인력 필요 분야를 연구하여 유학생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신의 고유 환경, 특성화 방향,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유학생 취업을 위한 특성화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교육부 보도자료(2015).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안).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2020년까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백성준(2015).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선 방향. The HRD Review 18(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기정(2010). 국내 외국인 학생 지원 관리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Australian Government(2015). Draft National Strategy for International Education (for consultation).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위대한 여정, 새로운 실크로드를 찾아서 - 러시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클
·

김윤기

경기 소사고등학교 교장

I. 올해로 대한민국은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마음 놓고 햇볕도 쬐지 못하던 암울한 시절에서 햇살에 얼굴을 내밀 수 있게 된지 일흔 둘을 맞았다. 그렇다고 양지바른 언덕

에서 근심 없이 느긋하게 햇살을 누리듯 대한민국의 역사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남북 분단, 6.25 전쟁, 월남 파병, IMF 사태 등을 비롯하여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시련이 있어 왔다. 그리고 지금은 이념과 지역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언론, 기업 및 국민 모두가 이번



광복절을 국민대화합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힘을 모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경제대국으로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는 1945년 광복을 하기까지 일제치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낸 애국독립지사들의 노고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나라 잃은 설움에 해외를 전전하던 온갖 어려움을 겪은 동포들의 피와 땀으로부터 피어난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승만,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김원봉 등을 비롯해 독립을 위해 미국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구소련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 자기 하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후손들이 자유롭고 떳떳하게 살아갈 터전을 되찾고자 모든 것을 던진 애국지사들. 중앙아시아 사할린을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는 아직도 애국지사의 후손들과 수십만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 과거 소련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의 일원이 된 나라들에 살고 있는 고려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단절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II.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아직도 시골 어르신들은 러시아보다 소련이란 말에 더 익숙하다. 1991년 10월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들어섰지만 모스크바의 눈보라 치는 붉은 광장과 독한 보드카,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맹주로서 기억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 소련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다.

사실, 20여 년 전만해도 소련(USSR)과 러시아(Russia)는 다른 의미이면서도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약 70여 년 동안 러시아 지역엔 15개 공화국의 연방형태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있었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는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정부를 달성하고, 이웃의 소수민족 국가들과 연방형태로 국가를 유지해 왔다. 그 후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정책으로 소련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러시아연방과 과거 소연방의 일원이었던 15개 공화국 중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독립하여 별개의 국가를 이뤘고, 나머지 공화국들은 사실상 각자의 노선을 가고 있으면서도 느슨한 연방체제인 '독립국가연합'이란 정치적 실체를 만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구성된 독립국가연합 중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 10월 탈퇴하였다가 다음해 9월 복귀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 탈퇴한 후 준회원국으로 남아 있다. 그루지아는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탈퇴하여 지금은 10개국 '독립국가연합'이다.



경제적으로 독립국가연합은 74년간의 소연방때 추진된 각 공화국간 산업의 특화 및 분화 정책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단일화폐의 사용, 자유로운 경제교류 등의 단일 경제권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독립국가연합단일군 통수권에 의한 집단안정보장체제 구축을 표방하고 있으나, 핵무기 통제 및 통합군통수권의 주도권 다툼, 회원국 간의 빈부격차에 따른 경제개혁 조치의 부조화, 민족갈등 등으로 말미암아 독립국가연합의 존립기반이 굳건하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 그루지아-압하지야 분쟁, 타지키스탄 내전 등은 아직 꺼지지 않은 화산처럼 언제 독립국가연합의 존립을 흔들지 모른다.

독립국가연합의 실질적 리더인 러시아는 엄청난 자원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다. 아울러 정신적, 문화적 잠재력과 우주 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 발레,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영토대국인 러시아는 21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푸틴 대통령 취임 후 러시아 전역을 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전권대표를 파견하여 다스리고 있다.

Ⅲ. 러시아 교육제도

러시아에 최초의 교육기관이 세워진 때는 1631년 표트르 모길라가 키예프에 설립한 '모길라 아카데미'다. 이 학교에서는 문법, 수사학, 수학, 천문학, 음악 등을 가르쳤으며 정식 대학의 틀을 갖춘 러시아 최초의 대학은 1755년에 설립된 '모스크바 국립 대학'이다. 러시아의 교육시설은 19세기 말 크게 확대되었다. 혁명 이전 러시아의 교육시설은 '김나지움'이라고 일컫는 중등학교

가 200여 개 있었으며 초등학교는 약 8만 개에 이르렀다. 학교는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이 세우기도 했는데,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와 체호프가 농민을 위해 세운 학교들은 아직도 유명하다. 러시아는 푸슈킨, 체호프, 톨스토이 등 세계 문학사에 획을 긋는 위대한 작가들을 배출했지만, 일반 대중은 문맹상태로 오랜 세월을 보냈다. 1897년의 경우 남성의 29.3%, 여성의 13.1%만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볼셰비키 혁명은 교육의 대중화를 가져왔고 1920년에 이르러서는 9-49세까지의 국민 중 54%가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레닌은 "기술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 없이는 강한 산업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1920년 '문맹청산학교'를 세웠다. 동시에 농민과 노동자들로 하여금 대학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19년에는 '노동자학부'라는 특별학교도 만들었다. 이로 인해 특별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하여 1932-33년에는 609개의 특별학교에서 20만4,900명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등 대중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30년 시작된 초등의무교육은 1949년에 이르러 러시아의 모든 소년들을 대상으로 7년제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제도는 '쉬콜라'라고 일컬어진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 교육과정 중 의무교육기간은 8년이며, 이중 7년간만 받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아동들은 6-7세에 정규 교육기관에 취학하여 의무교육 기간이 끝나는 8학년(초급 4년과 중학교 4년)까지는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 9학년부터는 일차적인 진로선택을 하는데, 일반 고등학교 과정(2년)을 다니거나, 일반학과 특정분야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기술학교 과정(테흐니쿰, 3-4년)으로 진학하기도 한다. 대체로 '테흐니쿰'이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선호되고 있으며, 그 밖에 재능 있는 학생이나 신체장



애자를 위한 군사학교와 특수학교가 있다.

러시아의 고등교육기관은 종합대학과 전문화된 특수대학으로 나누어진다. 특수대학은 법학, 경제학, 외교학, 의학, 교육학, 전기공학, 도시계획, 농학, 국제관계학 및 예술 분야 등의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된 교육기관이다. 이들 기관에는 연구소 또는 아카데미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대학은 학·석사 통합 5년제 과정과 학사 4년+석사 2년 분리 과정이 있다. 입학시험은 매년 여름에 실시되며 경쟁률은 지명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모스크바 대학교, 모스크바 국제관계연구소, 모스크바 외국어연구소, 모스크바 문화예술연구소, 모스크바 연극·예술 학교 등은 평균 경쟁률이 50:1에 달한다. 수학기간은 보통 5년이며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연금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조금을 받으며, 일반 대학에는 야간대학과 우리의 방송대학과 유사한 자오치너 과정이 있는데, 러시아 학생의 절반 정도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학·석사 학위를 받는다.

대학 졸업 후 보통 3년 과정의 '아스피란트(한국의 대학원 과정)'를 마치고 졸업시험과 논문이 통과되면 '칸디다트'라는 박사 학위를 받는다. 우리와 달리 칸디다트 이후에 Post-Doc 과정에 해당하는 독트르(Doctor)를 취득해야만 정교수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오랜 기간 직장에서의 전문 연구 활동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IV. 실크로드의 여정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의 교육제도

1.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비단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족구성은 몽골로부터 이동한 투르크계 민족을 주류로 이란계 민족과의 혼혈로 형성되었다. 수도는 타슈켄트이며 1개의 자치공화국과 12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동·서를 연결하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처럼 외부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00여 개 이상의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2,755만 명에 이른다. 우즈베크 혹은 외즈베크이라고 알려진 말은 튀르크어로 '자기 자신, 핵, 중심, 진짜, 순수한'이라는 뜻을 가진 Uz 라는 단어와 '백부장'의 뜻을 가진 bek 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진짜 백부장'이라는 뜻이며, 우즈베크에 페르시아어 'stan'이 합해진 우즈베크스탄은 '우즈베크인의 나라'라는 뜻이다.¹⁾ 구소련 시절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가 공용어였으므로 인구의 80% 이상이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며 지식 인층은 러시아어를 사용하였으나, 독립 이후에는 우즈베크어만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우즈벡 간의 교역은 1993년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IMF에 이르러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 석유화학, 섬유, 전자,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며 농산물과 광산물(특히 우라늄)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우즈벡의 교육제도는 소련방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구소련 교육제도에 기초하여 구미의 교육제도를 결합한 독자적인 교육제도를 갖추고 있다. 1997년 교육제도 개혁에 따라 [교육법], [국가인재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교육법령을 통해 성인 문해율을 선진국처럼 99.7%까지 달성했으며, 교육기회의 남녀평등도 달성했다. 또한 2004년 5월 대통령령으로 [2004-2009년 학교교육 발전 국가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학제인 초등학교 4년, 일반중등학교 5년, 중등전문학교 3년의 12년제를 표방하였다. 초등학교와 일반중등학교를 합친 9년제 ‘일반중등학교’에서는 기초교육을 담당하며 3년제 ‘중등전문학교’에서는 전문직업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 교과서 무료 지급에서 2001년부터 교과서 대여시스템을 만들어 학생들이 짠 가격으로 교과서를 빌려 쓰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시설(컴퓨터, TV, 실험 실습실, 스포츠 시설 등)의 부족으로 약 4분의 1의 학생들이 2-3부제 수업을 받고 있다. 97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10학년과 11학년의 2년제 완전중등학교를 3년제 중등전문학교와 중등직업학교로 전환하고, 이를 의무교육체제 안에 편성하였다. 중등전문학교는 ‘아카데미 리제’라 불리는데 전문지식의 향상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을 목적으로 하며, ‘직업 칼리위’라 불리는 중

등직업학교는 학생들에게 일반 중등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 개 이상의 현대적 직업기술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즈벡의 고등교육기관은 총 66개(2008년)로 종합대학, 단과대학, 아카데미, 외국대학 분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 사립대학 없이 국·공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장학금으로 교육받는 장학생 비율이 30% 정도이며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고 개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가난한 계층 자녀들의 대학 교육 기회가 제한됨으로 대학 진학률이 2000년 13%에서 2006년 9.8%로 하락하였다.

소련연방 시절 고려인동포들은 강제이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특유의 근면성과 교육열로 동포 2-3세 중에는 상류계층을 형성한 사람이 상당수 있다. 하지만, 우즈벡어 공용어 정책에 따라 동포 자녀들이 다니는 러시아학교가 줄어들고 있어 대학진학의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2년 타슈켄트 한 국교육원이 설치되고 한글학교와 한국문화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타슈켄트를 포함해 전역에 한글학교 수만 120여 개나 되며, 학생 수도 만 명을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한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표 1] 우즈베키스탄 학제

나이	학교급	주관
7세까지	보육원과 유치원	취학전 교육
8세~11세	초등학교(4년)	일반중등교육
12세~16세	일반중등학교(5년)	
17세~19세	중등전문학교(3년) (아카데미 리제) 중등직업기술학교 (3년)	전문중등교육
20세~23세	고등교육프로그램(4-5년)	고등교육
24세~25세	석사과정(2년)	
26세~28세	대학원 과정(3년)	고등교육기관 이후 교육
29세~	박사학위 과정	

1)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많이 나타나는 ‘~스탄’이란 페르시아어로 지방이나 나라를 뜻한다. 인도유럽어족의 라틴어 status, 영어 stand 와 같은 어원을 공유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



2.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에 이르는 영토대국이나 인구는 2014년 기준으로 1,800여 만 명에 불과하다. 거대한 자원부국답게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금, 구리, 철광석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30여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종교 국가다. 독립국가연합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WTO 가입도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50대 경제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2007년 '새로운 세계에서의 신 카자흐스탄'이라는 대통령 연설에 기초하여 전 산업분야에 걸쳐 현대화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 EU 등 선진국들과 원유 및 가스 산업, 제조업 분야의 유치를 통해 실질경제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는 '중앙아시아협력기구'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터키, 파키스탄, 이란 등 회교권 국가들과는 '비아랍 이슬람 지역 경제협력기

구'를 통해 상호 경제협력 및 아프간, 이라크 재건 등을 통해 성장을 꾀하고 있다.

우리와는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실질적인 상호 경제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이해관계가 부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중요시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한국기업의 유치이며, 우리는 자원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에너지지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소중한 투자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또 향후 대러시아, 대중국 우회진출기지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경제거점이 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의 교육제도는 유럽 등 국제 기준과 일치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데, 취학 전부터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쉬콜라(백텡)에 이르기까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가 다변화되고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 민주화 등에 따라 사립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현 교육제도는 통상 6세까지 유치원에 다니고, 6-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1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초등은 1-4학년까지이며, 17세가 되면 졸업시험이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시험인 전국연합고사(Unified National Test, UNT)를 치른다. 언어와 관련하여 학부모나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언어, 즉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카자흐어를 선택할 경우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대학은 구소련시절 국립대학 위주였으나, 최근 들어 사립대학이 증가하여 현재는 국립대학(33개)보다 사립대학(126개)이 더 많다. 또 유럽연합에서 교육체제의 구조조정 격으로 실시되었던 볼로냐 협약을 채택하여, 기존 석사-준

[표 2] 카자흐스탄 학제

나이	학교급		주관
1세~6세	유치원		• 연령별로 보육원, 유아반, 입학준비반 • 부모선택에 따라 교육여부 결정, 중일반
7세~10세		초등학교(1-4년)	• 4년제
11세~15세	쉬콜라 (1-9학년 의무교육)	중학교(5-9년)	• 5년제, 진급시험 • 9학년 이후 기술학교로 이전하여 4년 과정 마칠 수 있음
16세~17세		고등학교(10-11년)	• 2년제
16세~19세	직업기술학교		• 3~4년제, 졸업 후 대학 2,3년 편입가능
18세~23세	대학교육		• 4-6년



박사-국가박사 체제를 벗어나 학사(BA), 석사(MA), 박사(PhD)로 개편하였다.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주간 52.4%, 야간 0.3%, 통신 47.3%)에서 나타나듯이 통신교육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유능한 학생들을 위한 대통령 장학 프로그램(볼로샹: Bolashak)을 통해 석·박사과정뿐만 아니라 학부생들도 해외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면 귀국해 5년간 전공분야의 국가기관에서 봉사할 의무를 진다.

3.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은 인구 550여 만(2010년 기준)에 수도는 비슈케크로 7개의 주와 2개의 특별시로 구성되어 있다. 국명은 '키르기스인의 나라'라는 뜻이다.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1992년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산과 하천에 의한 지형의 변화가 많은 산악국이며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여전히 인구의 40%가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국민 소득은 2013년 기준으로 1,280달러 정도다. 1998년 독립국가연합 국가 중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하는 등 시장경제 도입을 적극 시도했으나, 대통령 친인척의 부정부패, 인구의 소규모,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하자원 등으로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제도로는 구소련 교육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취학전 교육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초등 4년, 중학 5년, 고등학교 2년의 11년제의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립 이후 키르기스스탄은 고등교육 확대 정책에 따라 비약적인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1992년 대학 입학률이 14%였으나 2006년 43%까지 올라갔다. 매년 8월 1일 모든 대학에서 일시에 대학입학자격을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대학에서 본고사 형식의 대학입학시험을 치른다. 따라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 대학 및 학과의 출제방식이나 경향에 맞게 준비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 대학입학과 관련해 특이한 점은 매년 10학년이나 11학년 학생 중 우수학생을 각 주별로 한두 명 선발하는 제도다. 각자 자신 있는 분야의 주

[표 3] 키르기스스탄 학제

나이	학교급	주관
3세~6세	유치원(4년)	국민 교육부(의무교육)
7세~10세	초등학교(1~4년)	
11세~15세	중학교(5~9년)	
16세~17세	고등학교 (10~11년) 직업학교 (10~11년)	고등교육부
18세~20세	전문대학	
18세~22세	대학교	
23세~26세	대학원	
		국립 아카데미(학술원)



제를 선택하여 결과물이나 성과물을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10학년이든 11학년이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주제와 동일한 전공분야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학을 다니는 동안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주로 수학이나 물리, 언어, 역사 등의 분야에서 선발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한국교육원은 2001년 설립되었으며, 한글학교 운영 등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 보급에 매진하고 있다. 비쉬켈 인문대학을 포함해 4개 대학에 한국어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8개 대학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V.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영광은 재현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제는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는 30만 명 이상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구촌

어디에 살든 해외동포치고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고려인만큼 힘든 시기를 많이 겪은 동포도 없을 것 같다. 연해주 황무지를 개척하고, 강제이주에 따라 또다시 동토에서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중앙아시아 동포들. 이제 대한민국이 이들에게 햇살 같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다. ㄹ

[참고문헌]

『러시아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신현동 · 장연수, 바보새, 2004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김호준 지음, 주류성, 2013

『재외동포 연계 교육개발협력 활성화 방안』 신호숙, KEDI, 2008

<http://www.happycampus.com/doc/3620202>



미래 유망 직업 및 인기 직업 미래 고용 전망



글

정현진

중앙일보 사회부문 메트로G팀 기자

직업은 시대나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사라지고 또 태어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시대변화를 촉진한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그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2045년경 기술이 인간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이 도래하는 ‘특이점’이 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불과 10여 년 전 스마트폰이 이끌 IT 혁명을 상상하

지 못했듯이 3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다. 전 세계 석학들의 미래 전망을 담은 『유엔미래보고서 2025』는 “미국 정부는 현존하는 직업의 80%가 10년 내에 사라지거나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직업 전문가들은 향후 20~30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과학기술·환



[표 1] 향후 10년 고용 전망

고용 전망	직업 (196개)
증가 (13)	행사기획자, 임상심리사, 상담전문가, 홍보도우미 · 판촉원, 법률사무원, 간병인, 직업상담 · 취업알선원, 환경공학기술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택배원, 산업안전 · 위험관리원, 물리 · 직업치료사
다소 증가 (83)	편사 · 검사 · 변호사, 의사 · 한의사 · 수의사, 치과 의사, 노무사, 법무사, 번역가, 메이크업아티스트 · 분장사, 경영컨설턴트, 변리사, 통역사, 애완동물미용사, 회계사, 경찰관, 사서 · 기록물관리사, 결혼상담원 · 웨딩플래너, 세무사, 소방관, 만화가 · 애니메이터, 장례지도사, 관세사, 교도관, 음악가,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광고 · 홍보전문가, 대중가수 · 성악가, 항공기 객실승무원, 상품기획전문가, 무용가 · 안무가,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강사, 경영지원사무원, 웹 · 멀티미디어디자이너, 기계공학기술자, 무역사무원, 감독 · 연출자, 전자공학기술자, 회계 · 경리사무원, 약사 · 한약사, 배우 · 모델, 전기 · 전자설비 조작원, 안내 · 접수사무원, 치과위생사, 아나운서 · 리포터,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보험 · 금융상품개발자, 임상병리사, 연예인 · 스포츠매니저, 컴퓨터보안전문가, 손해사정사, 방사선사, 항공기 조종사,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생명과학연구원, 치과기사, 관제사,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인문과학연구원, 안경사, 화물자동차 운전원, 웹 · 멀티미디어기획자, 사회과학연구원, 영양사, 영업원, 방송 ·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특수학교교사, 의무기록사, 경호원, 비파괴검사원, 유치원교사, 응급구조사, 청원경찰, 재활용처리 · 소각로 조작원, 학원강사 · 학습지도사, 간호조무사, 청소년 · 기사도우미, 공예원, 시민단체활동가, 미용사, 전통건축 건축원, 보육교사, 피부미용사 · 체형관리사
유지 (68)	기업입원, 패션디자이너, 토목공학기술자, 전기 ·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감정평가전문가, 인테리어디자이너, 조경기술자, 컴퓨터하드웨어기술자, 조사전문가, 시각디자이너, 교통설계전문가, 통신공학기술자, 생산관련 사무원, 캐드원, 지적 · 측량기술자, 컴퓨터시스템설계 · 분석사, 운송사무원, 영화연극 · 방송제작 장비기사, 단열공, 데이터베이스 설계 · 관리 기술자, 비서, 항해사, 공업배관공, 정보시스템운영자, 투자 · 신용분석가, 철도 · 전동차기관사, 건설기계 운전원, 통신장비 · 방송송출 장비기사, 자산운용가, 버스운전원, 단순노무 종사자, 주방장 · 조리사, 금융 · 보험 관련 사무원, 크레인 · 지게차 운전원, 기계장비 설치 · 정비원, 바텐더, 보험 관련 영업원, 부동산중개인, 운송장비 정비원, 식품공학기술자 · 연구원, 작가, 텔레마케터, 자동차 정비원, 제과제빵사, 출판물 전문가, 계산원 · 매표원, 금형 · 공작기계 조작원,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큐레이터 · 문화재보존원, 경비원, 자동차 부품 조립원, 섬유공학기술자, 기자, 세탁원 · 다림질원, 제조공정 부품 조립원, 환경 관련 장치 조작원, 미술가, 경기감독 · 코치, 재료공학기술자, 악기제조 · 조율사, 국악 · 전통예능인, 운송선수, 화학공학기술자, 간판제작 · 설치원, 제품디자이너, 건축가 · 건축공학기술자, 전기공학기술자, 임업 관련 종사자
다소 감소 (32)	증권 · 외환중개인, 이용사, 건설배관공, 비금속광물 가공장치 조작원, 대학교수, 도시계획전문가,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전기공, 초 · 중등학교교사, 철골공, 판금원, 제관원, 식품 제조 기계 조작원, 철근공 · 콘크리트공, 단조원, 인쇄 ·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사진가, 조적공 · 석공, 주조원, 귀금속 · 보석 세공원, 택시운전원, 건축목공, 용접원, 직물재배종사자, 상품중개인 · 경매사, 미장공 · 방수공, 도장원 · 도금원, 낙농 · 사육 관련 종사자, 상품판매원, 도배공, 금속 가공 장치 조작원, 어업 관련 종사자

*고용 전망 기준=일자리 수가 현재보다 2% 초과해 증가할 경우는 '증가', 1~2% 증가는 '다소 증가', 1~2%감소는 '다소 감소'로 분류.

경 · 고령화 세 가치를 꼽는다. 어떤 산업이 뜰지를 보면 직업판도를 읽을 수 있다.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 알아봤다.

향후 10년, 사회복지 분야가 유망

청소년들에게 의사 · 변호사 · 변리사 등 소위 '사자 돌림' 직업은 여전히 인기가 높다. 직업 자체가 주는 보람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소득도 높아 직업선호도 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다. 최근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문제가 겹치면서 경찰관 · 소방관 등 공무원도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직업들의 10년 후 고용 전망은 어떨까.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향후 10년 고용 전망'을 살펴보면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현재보다 고용 규모가 늘어나는 직종도 있고, 반대로 줄어드는 직업도 있다. 뜨는 산업이 있으면 지는 산업도 있다는 것이다.

'향후 10년 고용 전망'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고용 규모보다 일자리 수가 2% 이상 늘어나는 '증가'로 분류된 직업은 총 13개로 조사됐다. 특징적인 점은 13개 직업 중 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상담전문가 · 간병인 · 간호사 · 물리치료사 등 건강 · 복지 분야 직업이 6개나 된다는 점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향후 고용 전망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 규모는 연평균 7.5%씩 성장을 이어가 2020년엔 103만7,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는 한국사회가 겪는 가장 커다란 화두 중 하나"라며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사회복지 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 크게 늘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초고령사회는 우리가 곧 맞이할 미래다. 유엔 세계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세계 인구의 16%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이보다 더 빠르다. 2026년 노년층 인구 비중은 20%, 2050년엔 한국 전체 인구의 38.2%가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층의 증가와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소비문화의 확산은 복지사회 진입을 앞당긴다. 이미 정부예산에서 복지부문의 지출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김종진 직업연구센터장은 “복지분야 인력은 다변화되는 사회발전에 맞춰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노인전문 간호인력은 물론 주거·빈민·청소년 전문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은퇴 후 재취업은 물론 자산 관리와 노년의 여가·문화생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노년 플래너, 친환경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그린 장례 지도사는 초고령 사회의 대표적인 신 직업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상근 선임연구위원은 “의학의 발전과 함께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의학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고객의 생활습관 개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기획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웰니스 코치도 유망한 직종”이라고 소개했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개인 맞춤형 건강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 계통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10년 고용 전망에서 이들 직업은 앞으로 고용 규모가 1~2% 증가하는 ‘다소 증가’로 구분됐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로봇공학

[표 2] 미래 산업과 고용 전망(2020년까지 예측)

분야	사업명	연평균 고용 증가율(%)
1	사회복지서비스업	7.5
2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서비스업	7.3
3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6
4	법률·회계·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업	4.8
5	보건업	4.8
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6
7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2
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4
9	출판업	3.8
10	고용 알선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3.6

자, 과학수사요원 등 과학 계통, 그리고 게임 개발자와 애니메이션 기획자 등 문화콘텐츠 분야도 비교적 밝은 전망을 나타냈다.

현재 고용 수준보다 일자리 수가 1~2% 감소하는 ‘다소 감소’는 32개 직업으로 조사됐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교사가 ‘다소 감소’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사는 고용 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초·중·고 교사와 대학 교수는 일자리 수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이다. 만 6~17세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령인구는 2000년 810만 명을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해 2040년엔 500만 명 미만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로봇·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제조업과 건축 분야 노무 인력, 단순 관리, 판매업 인력도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표 3] 미래 유망 직업

고용 전망	직업 (196개)
과학	인공지능 전문가, 유전공학·생명공학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로봇 전문가, 정보 보안 전문가, 홀로그램 전문가, 소셜미디어 전문가, 3D 프린터 전문가, 나노 기술 전문가, 뇌분석·뇌질환 전문가, IT 컨설턴트, 가상·증강 현실 전문가, 자율주행자동차·드론 개발자, 사물인터넷 전문가
환경·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전문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온실가스 컨설턴트, 환경 공학 기술자, 탄소배출 거래권 중개인, 에너지 진단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원, 스마트그리드 통합 운영원, 환경 컨설턴트
고령화·건강	사회복지사, 간호 인력, 웰니스 전문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개발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임상심리사,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노년 플래너, 그린장례지도사

미래엔 생명정보학자, 인공장기 개발자 각광

21세기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은 ‘융·복합’이다. IT·바이오·나노·에너지·생명과학·로봇 등 학문간 경계를 허문 융합분야가 사회발전을 이끌고 있다. 미래기술예측기관으로 유명한 테크캐스트(www.techcastglobal.com)는 2025년경을 전후해 “그린경제·대체에너지·사물인터넷·전기자동차·바이오컴퓨터·유전공학·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이 세계경제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한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사인 매킨지의 분석도 비슷하다. 매킨지는 세계경제를 뒤흔들 미래기술로 ‘사물인터넷·3D프린팅·로봇·클라우드·유전공학·무인자동차·에너지저장장치’ 등을 꼽았다. 김종진 센터장은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은 직업구조를 빠르게 바꿔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주로 정보통신기술이 혁명을 이끌었다면 향후 20년간은 생명공학·의학·약학 등 생명과학 분야가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IT·바이오·나노 기술의 융합발전은 심장·콩팥·간과 같은 인간의 장기를 인공적으로 배양해 이식하고, 팔다리와 같은 신체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맞춤형 인공 기관의 시대를 열고 있다. 유전공학은 돌연변이를 일으킨 특정 유전자만을 골라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기술은 물론 한 사람의 유전코드를 읽어 내 암·당뇨·비만 등 각종 질병의 발병 확률을 계산해내는 수준까지 상용화됐다. 실제 미국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유방암·난소암 발병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안 뒤 암 예방을 위해 유방·난소·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김종진 센터장은 “유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연구하는 생명정보학자나 인공 장기 개발자 등 유전·생명공학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로봇기술이 더 발전하면 로봇이 대부분의 수술을 대신할 수 있다”며 “의사도 단순 임상치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줄기세포나 유전자, 수명연장 등 생명과학 분야를 특화시킨 의사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억 대리인, 데이터 소거원도 생겨요

사물인터넷 시대로의 진입도 미래사회 혁신의 한 축이다. 아이폰에서 시작한 스마트 혁명은 모든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IT 전문가들은 5년 후면 전 세계적으로 약 300억 개의 전자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방 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처럼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휴식·취침·운동 등 내 몸의 상태를 알아서 파악하고 온도·습도·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 시장조사기관 렉스리서치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의료시장은 2013년 약 50억 달러(한화 약 5조

7300억 원)에서 2023년 420억 달러(한화 약 48조1400억 원)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물인터넷의 성장은 새로운 산업을 키운다. 한상근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증강 현실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자율주행차 동차·드론 개발자 등 IT와 각종 산업이 융합한 첨단산업 직종이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직업도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해 말 발표한 ‘미래 직업 10선’에 오감인식 기술자, 도시 대시보드 개발자, 사물 데이터 인증원, 기억 대리인, 데이터 소거원 등 사물인터넷 관련 미래 직업 5개를 포함시켰다. 김중진 센터장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해졌다”며 “늘어나는 해킹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보안 전문가도 전망이 좋다고 예측했다.

기업은 빅데이터 전문가에 주목한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각종 통계뿐 아니라 SNS로 유포되는 수억 건에 달하는 문자·영상 등 방대한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 전문가가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상관관계를 찾고 미래에 실행 가능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낸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세스 혁신 및 신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정부·기업의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이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인 다임소프트 마이닝랩 이희상 대리는 “빅데이터 분석은 기업의 미래 생존 전략에서 이미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공공기관·대기업·방송사·금융기관·통신사·IT 회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빅데이터 분석 팀을 꾸리고 채용을 늘려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사물인터넷 시대는 빅데이터 시장을 더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리는 “이제는 전자기기뿐 아니라 인터넷에 연

[표 4] 미래에 새로 생겨날 직업

직업	설명
인공장치 조직 개발자	바이오프린팅, 3D프린터로 인공장치 및 조직을 생성
탈부착 골근력 증강기 연구원	입고 벗을 수 있는 골근력 증강기를 개발
오감인식 기술자	사람의 얼굴 표정과 음성을 인식해 행동을 분석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도시 대시보드 개발자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넘쳐나는 도시 데이터를 비교하고 모니터링해서 보여주는 장치를 개발
사물 데이터 인증원	사물인터넷 시대에 사물을 데이터로 인식하기 위해 사물의 범주를 구분하고 각 범주마다 개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인증
기억 대리인	한 사람의 일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하고 의뢰인이 필요할 때 정보를 재생
데이터 소거원	인터넷에 떠도는 의뢰인의 부적절한 정보를 안전하게 제거
아바타 개발자	인간을 대체하는 아바타 홀로그램 개발
국제 인재 채용 대리인	국가 간 인재 채용을 대행하고 현지 적응을 돕는 전문가
문화 갈등 해결원	인종·국가·민족·종교 등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절

결된 스마트 의류·신발 등 웨어러블 기기까지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영국선 이미 저탄소산업 일자리 100만 개

미래사회를 관통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환경이다. 2030년까지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배출될 탄소는 현재보다 16% 증가한 약 3만 5,000메가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산하 국제기후변화협약체(IPCC)는 2007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2030년까지 0.5~1.5°C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21세기 말엔 최고 6.4°C 높아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각국의 경제적 피해는 2100년경 국가별로 국내총생산(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국도 환경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 인해 28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2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 7조3,199억 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기록한다. 재산 피해 규모는 1970년대보다 약 20배 증가했다.

지구온난화와 가뭄·한파·홍수·폭설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활발해 지고 있다. 미국 환경청은 2030년까지 미국 내 화석연료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유럽연합(EU)도 같은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내년까지 탄소배출량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0%까지 줄인다는 목표 아래 올해 초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시작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와 관련한 친환경 산업과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관련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매해 3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료 전지, 친환경 건축,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등 친환경 관련 산업의 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 온도·압력을 전기로 바꾸는 에너지 수확 기술 등 새로운 기술도 등장했다. 직업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사무직을 의미하는 화이트칼라가 지고, 친환경 산업 직군을 뜻하는 그린칼라가 부상하고 있다”고 말한다.

선진국은 그린칼라 직군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영국의 저탄소산업은 유럽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 4%씩 성장해 벌

써 관련 일자리를 100만개나 창출했다. 한상근 선임연구위원은 “공기관과 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책을 연구·입안하는 기후변화 전문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자, 환경 컨설턴트 등 그린칼라 직군이 미래 유망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는 40여 개의 신 직업 중 환경 관련 직업이 6개나 포함됐다.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 지속가능경영 컨설턴트, 화학 물질 안전관리사, 녹색 건축 전문가, 가정 에코 컨설턴트, 그린 장례 지도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변화는 친환경 관련 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성장전략마저 바꾸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컨설턴트의 등장이다. 지속가능경영 컨설턴트는 경영에 미치는 환경·사회문제와 기업 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업을 기획·개발·운영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줄이는 경영계획을 자문하거나 생산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폐기물 감축 방안을 찾는 등 친환경 경영을 설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김동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서구 유럽과 북미 지역에선 이미 친환경·공정무역 등을 중요한 소비기준으로 삼는 ‘윤리적 소비’가 널리 퍼져 있다”며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산과 제품에 크게 좌우되는 시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품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전문 컨설턴트뿐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지속가능경영패러다임을 숙지하고 일하는 사람이 더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제공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성과와 과제



글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

I. 서론 :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교육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특히 대학의 역량이 곧 국가의 역량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은 경제성장의 버팀목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대학에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기존의 “입학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뛰어 넘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그 동안 대학이 성장해온 배경에는 학과를 증설하고 정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입학생을 받아들이는 공급 중심의 접근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라 정해진 역량을 갖추기만 하면 사회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을 많이 보유한 인재보다는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과 사회의 요구되는 역량 간의 불일치는 기업에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재교육의 부담을, 학생에게는 진로 및 취업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이러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화두로 제시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학의 변화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II. 대학 구조개혁의 취지

1. 소모적인 학생유치 경쟁이 아닌

교육의 질 제고 경쟁을 도모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대학 신입생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매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각각 신입생을 몇 명이나 유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학생유치 경쟁에 직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캠퍼스를 도심으로 이전하고, 등록금을 인위적으로 삭감하며, 매력적인 학과명을 개설하는 등 교육의 질과는 관련이 없는 소모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에서 마련한 방안은 대학 간의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생, 학부모의 관점에서 교육의 질 제고 노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적정 수준으로 대학 신입생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고 대학은 학생 유치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의 질 제고에만 힘을 쏟으면 될 것이다. 비록 지방에 소재하거나, 규모가 작거나,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노력의 정도에 따라 정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2.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평상시 노력을 유도

기존의 대학 평가는 정량 지표를 토대로 하위 15%의 대학을 선별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객관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대학이 하위 15%에만 들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정량 지표를 끌어올리는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물론 교원, 재정, 취업률 등 수치가 좋아지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래서 좋아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는 평가방식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도입하였다.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교육과정 등 학생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영역에 대해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숨은 노력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였다. 그리고 평가

대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보다는 학생, 학부모의 관점에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소에 노력을 기울여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변화

재정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대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정책이다. 예를 들어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은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20년, 30년 후 사회 수요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와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는 대학의 노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기초 학문의 중심축으로 인문학을 진흥하고, 학과 또는 전공의 벽을 넘어 다양한 융복합 강좌를 개설하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대학의 경계를 넘어 지식을 공유하는 등 대학이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창출하는 장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스스로 공급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울타리에 얽매이지 않고 수요자의 관점에서 학생과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Ⅲ.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

1. 고등교육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2013학년도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학, 그 중 지방 전문대학이 51.5%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대학, 전문대학은 상대적으

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그러나 선제적인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으로 대학의 유형이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각 대학이 교육의 질 제고 노력에 따라 정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일반대, 전문대를 구분 평가하여, 입학정원 규모의 비율에 따라(63:37)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지방대학이 선전하여 평가에 따른 추가적인 정원 감축의 50% 이상을 수도권 대학이 차지(일반대 51.4%, 전문대 59.6%)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대-전문대, 수도권-지방 간 정원 감축의 격차를 완화하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한편, 대학의 학생 미충원에 따른 폐교 위기도 최소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

질적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교양 기초교육과 인문학적 토대를 강화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융·복합 교육의 수요





를 충족하고 평생·직업교육 등 새로운 수요를 흡수하여 고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학부교육 뿐만 아니라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사회봉사 등 다양한 측면의 특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지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 창출과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으로 대학 교육의 흐름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맞춤형 인재로서 사회에 나아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되어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구현의 중심이 되는 고등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대학 구조개혁의 과제

1. 평가에 대한 대학 현장의 수용성 제고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전국의 일반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성평가로는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대교협, 전문대교협, 대학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현장에서 보기에 부족한 점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구조개혁 평가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 법적 근거 마련

지속적인(sustainable)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2주기, 3주기에 걸쳐 정원을 감축하고, 학

사구조 개편 등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조문별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3. 전 사회적 관심과 지지

대학 구조개혁은 결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학령인구 40만 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고등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날 다양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 정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V. 결론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제2의 도약을 꿈꾸며

대학 구조개혁은 결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학령인구 40만 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고등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날 다양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 정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ㄹ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SW교육의 방향과 전망



글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I. 들어가며

최근 신문 등 언론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이후 컴퓨터 교육,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뜨거웠던 적도

없을 것이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디지털 지식정보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지식정보 사회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 중이며, 올해 9월,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부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과 전망,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SW교육 강화 배경

교육부는 지난해 7월,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와 합동으로 개최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회’를 통해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과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 창의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모든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학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 기조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해외의 주요 나라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필수화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영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국은 2014년 9월부터 기존의 ICT 활용 교육을 대체하는 새로운 ‘컴퓨팅(Computing)’ 과목을 신설하고, 초·중등학교의 모든 학령(5세~16세)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12개의 정규 과목 중 하나로 포함된 컴퓨팅 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스포츠와 더불어 5대 필수 과목 중 하나가 되었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영국이 맨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필수로 편성한 것은 산업경제 시대에 이어 디지털 창조경제 시대의 패권을 다시 거머쥐고자 하는 영국의 절실함이 묻어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1].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는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2016년부터 실시 예정에 있다. 이는 디지털 지식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와 함께, 소프트웨어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인식하고,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III. SW교육 강화의 주요 내용

교육부는 2014년 9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 될 예정이며, 초등학교는 5~6학년에서 배우는 ‘실과’ 교과에서 17시간 이상을, 중학교는 ‘정보’ 교과에서 34시간(기준수업시



수)을 이수하게 된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심화선택 과목이었던 ‘정보’가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된다. 교육내용은 초등학교 실과의 컴퓨터 활용 중심이었던 ICT 단원이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중심의 대단원으로 개편되고, 기존의 중학교 정보 과목의 내용 중에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영역 등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개발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그림 1]과 같이 학교 급별 계열성과 위계성을 갖는다. 초등학교 실과에서 코딩(프로그래밍) 체험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정보에서는 초등학교 실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제작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보’와 과학계열 고등학교의 ‘정보과학’ 과목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레고 블록처럼 명령문을 조립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는 교육용 도구를 활용하거나 컴퓨터 없이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제작의 기본원리를 학습하는 수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공통 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도 학습량과 난이도를 대폭 감축하여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이 개발 중이다.

IV. SW교육의 방향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코딩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정보 교육, 정보과학 교육, 컴퓨터과학 교육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소프트웨어 제작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의 산출물이며, 프로그래밍(코딩)은 어떠한 원재료 없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행위이다. 1854년 영국의 수학자 조지 부울(George Boole)은 ‘생각의 법칙에 대한 탐구’라는 책에서 ‘사람의 사고는 조립되는 것이며, 새로운 사고들은 3가지의 연결 방식에 의한 기본 사고들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연결 고리에는 ‘그리고(and), 또는(or), 부정(not)’이라는 수학적 연결자가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울 대수(boolean algebra)의 시작인데[2], 초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크래치를 비롯하여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 포함)에도 참과 거짓으로 구분되는 조건식(기본 사고)과 그 조건식을 연결하는 3가지 연결자가 동일하게 존재한다. 즉, 조지 부울이 주장하는 인간의 사고과정에 대한 수학적 표현 방법과 프로그래밍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딩(프로그래밍)이라 함은 이러한 ‘사고’들을 조립하고, 순차, 선택, 반복으로 대별되는 ‘사고의 순서와 흐름’을 컴퓨터의 ‘머리(중앙처리장치)’에 시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 이 과정이 매우 명확하고 형식적





(formal)이어야 한다. 이렇게 학습자가 컴퓨터에게 심어주어야 할 ‘사고’를 조립하고, ‘사고의 순서와 흐름’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력이 키워진다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다.

창의력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 중 하나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창의력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프로그래밍(코딩)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핵심요소들을 추출하는 등 문제를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추상화(Abstraction)라고 하는데, 이러한 추상화는 창조적 사고의 주요 방법 중 하나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생리학 교수인 로버트 루트번스타인(Robert Root-Bernstein)은 자신의 책 ‘생각의 탄생’에서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인식, 유추 등의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13가지 생각 도구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추상화는 ‘현실의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면서 중대하고 놀라운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3]. 이러한 추상화 과정은 일상의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겪게 되는 경험들과

맥을 같이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보과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으로 ‘추상화’를 새로 추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문제해결력은 20.4%, 논리적 사고력은 37%, 확산적 사고력은 22.3%가 향상되었다는 최근 연구결과[4]는 프로그래밍(코딩)이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학습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레고 블록처럼 명령문을 조립하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들을 이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능력이 함양되도록 해야 한다.

V. 향후 과제와 전망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초·중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 교사 확보 및 연수, 인프라 개선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올해 2월에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지침을 전국 학교에 보급하면서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초·중등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년 전까지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안내서로서,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가 개발되어 보급되기 전까지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보조 교재도 필요하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



교 대상의 학생용 보조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가 개발 중이다. 기존 교과서 형식을 탈피하고,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되도록 워크북 형태의 교재로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학습자가 프로그래밍의 흥미와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문제상황을 실생활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재와 함께 단위 학교의 실습실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2015년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소프트웨어 교육용 기자재 및 무무선 망 등 교육환경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연차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실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주체는 교사다. 따라서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간 170명씩 총 680명의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교원을 양성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교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연수 등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최신의 교육내용이나 수업사례 등을 현장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선도교원의



양성과 더불어, 전체 초등 교원의 30%에 해당하는 6만 명과 중학교의 정보·컴퓨터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개발·보급하고자, 올해부터 전국 68개교(초45교, 중23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 중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는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지침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일반학교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Ⅵ. 맺으며

소프트웨어 교육은 서두에서 논의한 것처럼,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훌륭한 도구다. 따라서 지식 위주의 내용을 주입하거나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을 컴퓨터 화면에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양하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식하는 쉽고 재미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래야 소프트웨어 교육이 교실에서 학생들의 함성소리가 들리는 신나는 교육으로서 초·중학교의 필수 교과로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한국경제신문, '英 코딩 못하면 국가미래 없다. 5살때부터 컴퓨터언어 교육', 2014.03.31, A5면
- [2] 이광근,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 인사이트, 2015
- [3] 박종성(역), 로버트 루스번스타인, 미셸 루스번스타인(저), '생각의 탄생', 예코의 서재, 2007
- [4] 안성진, '초중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과 논리적 사고력 향상과의 상관관계 연구', 2014



변형되고 있는 세계 속 글로벌교육의 싱크탱크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



클

김미숙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 실장

I. 글로벌 사회와 글로벌교육

요즘은 모든 것이 글로벌이다. 글로벌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뭔가 새롭지 않고 어딘가 시대에 뒤쳐져 있는 느낌을 받는다. 글로벌 인재, 글로벌 역량, 글로벌 기업, 글로벌 시대, 글

로벌 사회... 그래서 교육도 “글로벌 교육!”을 모두 힘차게 외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의 특징 중 핵심이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즉, ‘세계화’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를 전제한 ‘글로벌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의외로 불분명하다. 사람마다 제 각기 시각과 자기 나름의 이해 속에서 이 용어들을 기본 좋게 – 글로벌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최소한 듣기에 참 좋다~ – 사용할 뿐이며, 그에 비해 명확한 정의나 합의된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글로벌교육에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알맹이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시대적 요청이라는 강력한 명분하에 우리는 어쩌면 글로벌이라는 용어를 충분한 의식과 성찰 없이 무비판적으로 남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년 전 미래교육연구실을 전신으로 하여 출범한 다소 젊은 연구실인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은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 이러한 글로벌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태생적 고민을 안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은 우선 글로벌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의 메가트렌드에 대한 철저한 동향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지향점을 찾기 위해 주력한다. 글로벌 사회에 대한 무비판적 편승이 아닌 학술자로서 비판적 안목과 철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해하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유산 속에서 글로벌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교육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나아가기 위함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메가트렌드 분석과 함께 연구자로서 핵심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데이터 수집을 중시한다. 그리하여 앞의 동향 분석 결과와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 어젠다를 개발할 뿐 아니라 교육시스템



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국가정책의 방향 수립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학교, 지역사회 등 교육 현장의 실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즉, 글로벌교육연구실은 크게 국제동향 분석과 실증연구 및 이에 따른 현장 밀착형 정책 제안 그리고 혁신적 교육시스템 개발의 선순환적인 순기능을 창출해 내기 위해 현재 4명의 박사급 연구위원, 4명의 석사급 연구원, 그리고 1명의 석사급 연구인턴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실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Ⅱ. 글로벌교육연구실의 미션 및 운영 방향

글로벌 사회의 주요 키워드, 즉 국제사회가 주력하고 있는 주안점 중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창의성(새로운 가치 창출)과 웰빙(더 나은 삶과 행복 추구), 그리고 협력(함께 함과 교류)이다. 이러한 글로벌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교육연구실은 ‘창의, 행복, 협력을 위한 글로벌 교육 연구 및 글로벌 학습사회 형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조 속에서 연구과제를 발굴·수행하고 있다. 즉 글로벌 사회를 주도할 국가교육의 장기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중장기 정책 의제를 개발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 교육시스템 혁신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션 하에 우리 실은 그 동안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학습 환경과 역량이 사회진보에 미치는 영향, 창의역량 측정지표 및 도구 개발, 행복교육의 실천을 돕는 행복교육 지수 개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 세계시민교육 실태 분석, 미래사회를 대비한 고교입학전형 혁신 등의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였다. 또 미션 수행의 전략들로서 글로벌교육 및 미래 동향 분석 방법을 위한 연구방법론 개발, 국내외 글로벌 교육 연구기관 및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국제기구 및 외국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세미나 개최, 글로벌교육 R&D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창의적 연구, 행복한 연구, 협력적 연구를 지향하여 왔다.



물론 글로벌교육연구실의 주 업무는 단연 기관의 기본연구과제 수행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실은 그 동안 2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관에서 함께 선정한 기본과제를 통해 행복교육, 창의인성교육 등의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OECD 등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비교가 가능한 실증자료 수집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갈등 문제, 세계시민교육, 학교유형의 다양화 등 국제사회의 트렌드를 주도적으로 반영하여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중장기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사업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I. 주요 연구사업

우선 OECD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역량(skills)과 학습 환경(learning contexts), 그리고 사회진보(social progress) 간 존재하는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국제 중단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는 2011년 시작되어 2019년경 대규모 본조사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OECD ESP 역량 역동성 중단연구(OECD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An Inter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Skills Dynamics)’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우리 실이 연구를 주도하고, 서울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역량 형성에 기여하는 학습 환경에 대해 고찰하고, 학습 환경과 역량이 가져다주는 사회경제적 결과, 즉 사회진보(예, 사회구성원의 행복감과 건강, 가족결속, 교육적 성취, 취업률, 시민참여, 환경, 안전 수준 등)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관련변

수들 간의 역동적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과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중단적 발달 추이도 살펴볼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OECD 회원국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역량’, ‘학습 환경’, ‘사회진보’ 변수에 대한 각종 측정도구들을 국제적으로 공동 개발하고, 국내 대규모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OECD 측정도구의 한국적 타당성 및 신뢰도에 대해 검증하였다. 현재는 OECD와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는 중단연구 설계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한국 타당화를 검토함으로써 추후 수행될 국제적 차원의 중단연구 본조사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학생들의 미래 성취와 성공, 행복한 삶의 주요 요인으로서 성실성, 친화성, 도덕성 등의 사회정서역량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정서역량은 그 동안 한국교육에서 인지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온 측면이 있어 향후 연구결과들을 통해 인지역량 뿐 아니라 사회정서역량을 두루 갖춘 글로벌 인재상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들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추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추진 중에 있는 과제는 인구 노령화에 직면한 글로벌 사회의 공통 문제인 세대통합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 실에서 2013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는 국제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세대갈등 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82년 유엔의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는 고령화 사회 현상이 주로 선진국의 관심사로서 등장하였다. 2002년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에



서는 고령화 사회 현상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까지 중요한 국가적 문제임이 인정되었으며, 글로벌화만큼이나 미래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힘으로 인식되었다. 2009년 발표한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eing)’ 보고서는 100세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인류 전체의 문제로서 모든 인류가 함께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류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범세계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100세 시대의 도래는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및 모든 계층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민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가 사회의 지속적·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특별히 교육 및 정보체제의 개선 전략을 모색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



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원뿐 아니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국대학교 등 외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가지고 3년간에 걸친 협동연구로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로서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전 세대에 걸친 교육시설과 자원의 개방, 공유, 활용, 참여 확대를 통해 노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사회의 공통 과제인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세계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과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사회로의 진입은 국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세계의 지도자들은 국가를 넘어선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조가 문제의 열쇠이고 또 세계화의 가속을 통해 세계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와 다른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인 시민의식을 국제적으로 함양할 뿐 아니라, 이제는 개별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서 세계인으로서의 자기인식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교육하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국제사회의 주요한 교육의제로 부상하

게 되었다. 일례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2012년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발표하고 GEFI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을 언급한 바 있다. 이때부터 세계시민성 함양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교육의제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의 주요 교육의제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하였듯이 세계시민교육이 국제사회의 교육의제로 급부상한 것과는 달리 국내 학계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낮은 개념으로 남아 있다. 실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기존의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글로벌교육 등과 세계시민교육이 유사한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나 체계적인 이론적 논의가 미흡한 것과는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이라는 용어가 교육현장에서 전혀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세계시민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범교과 학습주제로서도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교육과정은 이미 세계시민성 함양을 교육 전반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세계시민과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성 함양과 같은 교육목표가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학교 차원의 맥락에서 실제로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문헌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제와 학교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문헌에서 소외되었던 교사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고 학교 현장의 구조와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천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드러내 글로벌교육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2015년 11월 18일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의 세계시민교육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에서 올해 진행 중에 있는 연구 중 미래사회의 준비와 글로벌 인재 양성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입학전형 변천 및 실태’ 연구가 있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교육체제를 고교 입학전형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즉 고교 입학제도가 중학교 교육을 어떻게 도와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고교 입학전형제도를 살펴본다. 사실 초·중등교육체제 중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단계는 고등학교 단계이며, 최근 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 쏠려 있었다. 이에 비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 40여 년간 시험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은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었다. 대학 입학전형 제도만큼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식은 그것이 미치

는 영향력의 내용, 범위 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전형제도에 비하면 고교 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자료 축적이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해방 이후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 진단하고, 둘째, 현재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별, 지역별로 입학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셋째,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변천과 현재의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창의적 글로벌 인재 키우기 위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학생들의 잠재력을 그들의 꿈과 끼에 맞게 키워주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미래를 준비해 가도록 돕는 어떠한 혁신적인 고교 입학전형 시스템이 가능한지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글로벌 사회의 시각에서 재검토한다.

IV. 향후 과제 및 미래 비전

세계 즉 글로벌 사회는 점점 더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도 덜도 아





년 하나의 세계정부이다. UN은 현재 193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가히 전 지구적 글로벌 거버닝 기구(a global governing body)가 되었고 해가 갈수록 개별 각국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UN Charter)은 1948년 작성된 이래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는데 이제 모든 나라가 준수해야 하는 세계 헌법과 같은 권위로 우리 앞에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또한 2015년까지 UN이 추진해온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그 이후 2030년까지를 바라보는 새로운 국제사회 어젠다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선포 등을 통해 보여주듯이 세계 속에 UN의 위상과 실천적 구체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유엔의 각종 산하기관들인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각종 국제기구들은 이제 특정 사안(예. 메르스, 외환위기, 온실가스 등)이 발생될 때마다 관련국들에 대해 해당 분야에 대한 외부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에는 모두 각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였고 각국의 주권에 속해 있던 문제들이었다.

분명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때와 장소가 명실공이 ‘글로벌 시대’요 ‘글로벌 사회’임을 극명하게 재확인시켜 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토, 무역, 이념,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요소를 조정하는 글로벌 통치가 반드시 존재해야 인류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 아래 국가 주권(national sovereignty)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때론 손상될 수도 있음을 사실상 정당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의미라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에게 친숙한 ‘국제 사회’라는 용어가 최근 들어 부쩍 ‘글로벌 사회’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전자 즉 ‘국제 사회’가 국가의 개념이 살아있고 그 국가들 간 상호작용의 장(inter-national)으로서 세계(world)를 이해한다면, 후자 즉 ‘글로벌 사회’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국가 개념 대신 전 지구적(global)으로 통합된 세계 즉 하나의 지구 거버닝 시스템(a global governing system)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함축한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우리는 이제 지구인(global citizens)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교육의 한 주요 축으로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구적 의식(즉, “나는 지구인이다”)과 필요성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또한 적극적으로 고취시키고자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이, 세계를 글로벌 사회로 새롭게 재편(변형)시키는 변화의 중요한 기제로 이해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9월 미국 뉴욕에서 UN 주관 하에 열리는 세계정상회의(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의 합의문 제목이 “세계를 변형시키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인 점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배경에는 에너지 고갈, 기아, 국가 간 전쟁, 테러, 종교 분쟁, 기후변화, 물 부족,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지구적 현안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구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스럽게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은 세계화 즉 지구화(globalization)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며, 이러한 명분과 필요성 하에 글로벌 사회는 세계 경제, 종교, 정치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실은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방향 감각을 가진 강한 싱크탱크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러한 글로벌 사회의 의미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것이 가져올 우리 사회와 교육의 큰 미래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 ♫

꿈 키우고 끼 살리는 희망의 날개 활짝 편다 - 대전 판암초등학교



클
·

강은경

충청투데이 기자

대전 판암초등학교(교장 진원용)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실천에 운영철학을 두고 학생들의 꿈과 행복에 날개를 달아주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대전 판암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과 여러 대회에서 잇따라 쾌거를 거두며 새

로운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대전 판암초등학교는 200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육복지지원사업학교'로 지정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사업을 지

원하고 있으며, 2012학년도에는 방과후학교 'Top-school 경진 대회'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돼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올해는 나이스 방과후학교 연구학교로도 지정돼 방과후학교를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그 꿈에 날개를 달기 위한 교육 과정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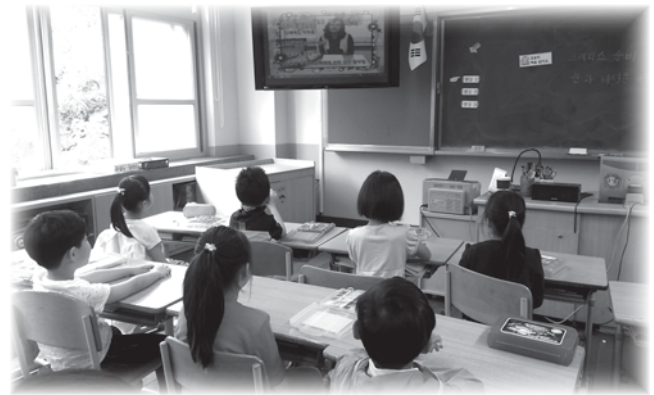
대전 판암초등학교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학교다. 2015년 나이스 방과후학교 연구학교로 지정되면서 교장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방과후 교육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수요자중심의 명품 프로그램을 운영해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해 공교육 내실화를 실천하면서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설 시 수요조사 결과와 학생들의 작년도 만족도조사를 활용해 학생들의 꿈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재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해 꿈을 위해 노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심어주고, 학생의 창의성과 특기 계발을 위한 학생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조사결과 소질과 흥미, 단계에 맞는 '행복을 키우고 꿈을 살리



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해 한 분야에만 갇힌 것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길을 확대하는데 나섰다.

예능이 꿈인 학생을 위해 바이올린, 점핑클레이, 미술, 아동요리, 통기타와 우쿨렐레부를 개설했고, 체육분야는 배드민턴, 체육교실을, 수학·과학 분야는 과학실험, 바둑, 컴퓨터, 주산, 암산수학, 로봇과학, 창의수학, 생명탐구교실 등을, 언어분야는 원어민 영어, 한자, 국어논술부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전년도에 비해 학생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아져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 교내 곳곳에는 방과후학교 상설 전시 및 홍보 코너를 만들어 강사 프로필과 방과후학교 부서 현황, 부서 소개, 학생들의 수업장면을 게시하고 있어 누구나 프로그램과 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월요일 방송초회시간에는 멘토인 학교 교사와 멘티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운영자가 협의를 통해 제작한 방과후학교



홍보동영상을 방송하고 있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학생의 소질과 흥미에 맞춘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대전 판암초등학교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과후학교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교사, 학부모, 프로그램 위탁 운영자 연수를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학생의 요구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 및 협의, 수업 개선, 프로그램 활동 개선 방안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또 대전 판암초등학교 교사와 프로그램 위탁 운영자의 1:1 멘토링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 운영 지원, 제출서류 작성 등의 업무 지원, 학생상담 및 교실관리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활동 지원은 프로그램 위탁 운영자들이 학교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 참관 후 멘토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질 개선에 도움을 받고 있다.

연 2회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학부모 프로그램 활동 공개 시 먼저 프로그램 활동과정 안을 작성해 멘토 교사와 사전 협의를 하고 완성된 과정 안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공개한다.

그리고 멘토 교사와 프로그램 활동 공개 사후 협의를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멘토링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꾸준히 높이고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활동 이력을 꾸준히 기록하고, 분기별로 학생들의 활동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학습이력을 관리하는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재·지진 대피훈련 체계적 안전교육,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방과후학교

특히 대전 판암초등학교는 학교 안전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비상상황 대피훈련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

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대전 판암초등학교는 안전수영 교육학교로 선정돼 3·4학년 학생들이 수영장 체험학습을 통해 물에 대한 공포심을 해소하고,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한 방과후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홀로 학생 제로화를 목표로 한 돌봄교실 운영

대전 판암초등학교는 '나 홀로 학생 제로화'를 목표로 전문 보육교사를 채용해 질 높은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 홍보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체험학습을 실시해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안전을 위해 학교 교사들로 조직된 저녁 돌봄 관리팀과 안전 지킴이를 구성하고 있으며, 돌봄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모들이 자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교실, 안전한 돌봄교실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 판암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있다.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각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구와 학습재료를 제공해 창의성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진원용 대전 판암초등학교 교장은 "대전 판암초등학교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참되고 슬기로운 어린이, 학교교육을 믿고 돕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꿈을 키워주는 사랑의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서 미래의 판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판암 교육가족 모두가 학생들의 행복에 날개를 달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며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꿈과 끼를 찾아 행복을 여는 판암교육

대전 판암초등학교에서는 '꿈을 펼치는 행복한 판암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랑과 열정을 지닌 선생님,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어린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교를 신뢰하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미래의 판암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행복하고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 사교육비 절감,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인한 학력 향상,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회복 및 창의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수요자의 교육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탄탄한 실력과 타고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있으며, 지역사회, 학부모가 하나가 되는 행복교육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 판암 어린이 책자 쓰기를 통한 8바탕 프로젝트 운영, 감동을 주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소통과 공감을 통한 놀이통합 행복교육, 꿈 다지기 책·소·문 프로젝트 운영을 중점사업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더불어 바른 인성, 큰 꿈을 향해 두드림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은 인성교육과 다양한 창의활동을 통한 두드림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는 수업혁신 224운동과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두드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판암교육은 전인적 발달에 기초한 학력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활동과 시설방문, 지역사회 지원을 통한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전 판암초등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꿈꾸는 학교, 나누는 우리, 행복한 학교 3통(수업통·비전통·행복통) - 광주 송의중학교



클
•

박정철

전라교육신문 기자

꿈과 나눔을 디자인하다

교단에 서 있는 교사들의 어깨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지라도 학생들의 활짝 핀 웃음에서 우리들은 미래의 희망을 찾게 되고,

남아 있는 열정을 학생들에게 쏟아 부으며 그들에게 비전을 열어주고자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음을 꿈꿀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무기력 등 요즈음의 교실풍경은 교사들에게 때로는 자괴감을 주고 교단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실망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눈높이를 맞추고자 부단히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존재하기에 교육이라는 커다란 배가 조금씩이나마 희망이라는 뜻을 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승의’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광주 승의중학교는 1959년 청산(靑山) 김신근 목사께서 설립하셨으며 굳건한 믿음, 뜨거운 사랑, 꾸준한 노력의 교훈을 기본으로 삼아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광주 승의중학교는 2010년 재능진단육성선도학교, 2011년 학교문화선도학교, 2011년부터 오케스트라운영학교, 2012년부터 3년간 창의·인성모델학교, 2012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2013년 인문학교육선도학교, 2014년 인성교육우수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과 나눔을 디자인하도록 교육활동을 펼쳐 왔다.

수업통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업 300나눔 연구회’, ‘GIVM교사연구회(기쁨/ 국어, 사회, 수학, 음악 교과 연계 융합 연구회), 교과통합 수업, 행복수업(행복교과서 활용), 꿈단지 학습 멘토링, 창의인성 교과연구회 등에 참여하여 연구활동을 하면서 교실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드게임(젠가)과 함께 하는 사랑과 우정의 SMILE 국어를 비롯하여 교실 속 융합과학으로 STEAM 교사연구회가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여 블록타임제로 수업하고 있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교과간의 통합적 교육방식으로 다양한 학습내용을 융합적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실천력을 기르는데 힘쓰고 있다.

그리고 경력 있는 교사들은 저경력교사의 멘토가 되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의논하며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거꾸로 수업(Fliped Learning), 하부르타 수업 등 새로운 교수법을 교원연수와 연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움으로써 교사들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학생들에게 학생중심의 맞춤형 수업통을 열어주고 있다.

비전통·행복통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성하여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비전을 찾는 것이 비전통의 기본방향이며, ‘나눔’을 통해 행복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행복통의 기본방향이다. 이 두 가지의 통이 서로 어우러져 행복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도록 준비하며 실행하고 있다.

이번 학년도에도 ‘꿈꾸는 학교, 나누는 우리’를 모토로 행복한 학교 3통(通)을 실현하기 위해 특색사업으로 창의·인성교육 선도학교, 인성교육 우수학교, 오케스트라운영학교,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오감만족 사제동행 동아리 봉사활동

창의·인성교육 선도학교와 함께 인성교육 우수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융합수업이 교육과정에 스며들게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스포츠클럽과 1교사 1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에서 매월 1회 3시간 씩 재미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수의 동아리는 각 동아리 형편에 맞는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과학 동아리 ‘빅뱅’은 2003년부터 재능기부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7월 13일에 ‘제23회 찾아가는 과학재능 나눔활동’을 펼쳤는데 특수아, 장애우, 농어촌 학교 등 소외계층만을 찾아다니며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 그들에게 꿈과 희망, 즐거움을 주고 있다. 요리 동아리 ‘쿠कि마마’는 김치 담그기, 제빵 등으로 복지시설에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해마다 찾아가는 새날학교(다문화 학생의 대안학교)의 봉사를 마친 후 어느 학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새날학교로 봉사활동을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은 배우고 느낀 것 같다. 이 세상에는 나와 다른 아이들도 많지만 그 아이들도 꿈을 가지고 자신만의 힘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기반성도 되는 기회였다. 내년에도 또 오고 싶은 봉사활동 체험이었다.”

사랑이 넘치는 음악의 울림

등교교를 할 때나 만남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사랑합니다”로 인사를 나누어 듣는 이나 말하는 이 모두가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 있다. 이 인사말이 본교에서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음악 소리라고 생각한다.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클래식음악이 흐르게 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과 인성이 함양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이 배우고 익힌 실력으로 병원, 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힐링 콘서트를 학부모합창동아리와 함께 5회째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교로도 거듭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밴드동아리들은 학생들이 시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 보낼 수 있도록 매 학기 드림 콘서트를 열고 있다. 또한 여러 동아리들이 학교의 설립이념을 추구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나눔과 배려가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신을 갖춘 학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모두가 하나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생 멘토링,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나라사랑 위한 체험활동으로 독도캠프, 역사여행으로 강화도캠프 등을 열어 교육활동과 체험활동을 동시에 펼치면서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감사 day, 프리허그day 등 학생들의 감성키우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중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과 희망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은 NO!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조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STOP!’이라고 외치며 또래조정프로그램 신청 학생이 함께 하는 학교생활 적응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Wee Class 문턱을 낮추고 ‘우·행·교(우리들의 행복한 교실)’의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저항의지도 키워 나가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여 경미한 교칙 위반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교사의 일방적인 훈계방식이 아닌,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자치법정은 매학기 2회 열리고 있다.

그리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고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나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학년 말에는 1학년(2014학년도)과 2학년(2012학년도부터)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I'M SPECIAL’이라는 주제로 1박2일 비전캠프를 열어 생각을 키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문화체험도 하면서 소통과 격려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희망교실에서 희망의 열매를 열다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희망교실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적극 참여하여 학생들의 희망과 꿈을 찾아주고자 체험활동, 리더십 함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신바람 나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년도에는 23개 교실을 열었으며, 이번 학년도

에도 25명의 교사들(22학급전체 + 3동아리)이 희망교실을 열어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교육현장을 밝혀주고 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인성교육을 펼친 결과, 광주 송의중학교는 2012년 대한민국 좋은학교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전국 100대 학교문화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5학년도 2월에는 학교폭력예방선도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2010학년도부터 교과부장관 표창 3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1회, 교육감 표창 5회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바 있는 비전通하고 행복通하는 학교다.

톨스토이는 “사람의 몸은 심장이 멈출 때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꿈을 잃을 때 죽는다.”고 했다. 광주 송의중학교는 학생들이 미래를 향하여 늘 꿈꾸는 자가 되고 나아가 꿈 너머 꿈을 꾸며 나눔과 배려가 살아 움직이도록 구성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송의’라는 아름다운 배는 앞으로도 순항을 하리라 생각한다.

아무리 교단에 서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학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교사들의 열정이 살아 있는 한 학교현장에서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학교폭력이 점차 사라지리라 생각한다

자유학기제 날개를 달다

2015학년도 2학기에는 광주에서 자유학기제가 1학년에서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기반으로 한 활동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꿈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핵심성취 기준에 근거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날개를 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시간이 보다 즐거워지고 유익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준비해 왔기 때문에 광주 송의중학교 1학년들은 다가오는 2학기를 기대하고 있다.

꿈꾸는 학교, 나누는 우리

학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NO.1이 아닌 ONLY 1'으로 각자 지니고 있는 재능을 발굴하여 자신의 미래를 향해 멋진 꿈을 꾸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꿈 너머 꿈을 꾸어 타인의 삶에도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비전을 열어주고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업인을 초청하기도 하고 선배들로 구성된 강사들로 직업군을 형성하여 보다 밀착형으로 진로비전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부모가 좋아하는 직업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100세 시대를 준비하자고 학생들에게 진로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

교실에서 '박사'라고 늘 불렸던 학생이 중년의 나이에 실제 박

사학위를 받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라고 전해 올 때는 교단에서의 말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늘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교사의 말 한 마디는 긍정의 씨앗으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독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장점과 재능, 그리고 끼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칭찬 한 마디가 그들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학생들의 꿈의 씨앗을 심는 씨앗지기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광주 송의중학교는 인성중심의 수업통!, 올바른 인성과 비전의 비전통!, 따뜻한 나눔 문화의 행복통!으로 '3통하는 행복한 학교'가 되어 꿈꾸고 나누며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명품학생, 명품교사, 명품학교의 전통이 학부모의 끊임없는 격려와 함께 이어져 나가리라 확신한다.☺

진정성으로 일군 '일반고의 롤 모델' - 부산 장안고등학교



글
·

김 경

베리타스알파 기자

부산 장안고등학교는 부산의 '일반고 롤 모델'이라 할 만하다. 학생중심의 진정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때문이다. 경직된 고교체제의 현실에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한 교육과정은 작은 시골학교가 전국구로 명성을 떨치게 했고 대입 실적까지 낚았다. 취재 결과 2015학년도 부산 장안고의 서울대 합격자수는 수시 7

명, 정시 1명으로 8명이다. 구술면접을 포함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되는 서울대 수시를 일반고가 준비하기는 어렵다는 통념을 확실히 깬 결과다. 압구정고, 서초고와 같은 서울 강남/서초 교육특구 일반고는 물론 부산외고, 해운대고, 울산과고와 같은 인근 전기 특목/자사고와 동일한 실적으로, 전국 2,300여 고



교 가운데 81위다. KAIST 5명, 포스텍 4명 합격 등 일반고에서 보기 힘든 이공계특성화대학 실적도 돋보인다. KAIST와 포스텍 으로부터 받은 고교별 등록자수 현황에 의하면 KAIST 2명, 포스텍 1명으로 '카포'에 3명을 등록하였다. 과학영재학교와 과고를 중심으로 내는 '카포' 실적에서 부산 장안고는 일반고 중에선 공주사대부고(7명), 수지고(6명)에 이은 톱3에 들었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북일고, 인천히늘고와 같은 등록자 수다. 입학정원 150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학교가 전국적으로 거론될 대입실적을 낸 동력은 '진정성'이 깃든 교육과정의 운영이다. 학교는 '실적보다는 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초점을 맞춘다.

학교장전형 일반고 작은 시골학교

부산 장안고는 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과학중점학교)다. 공주한일고나 공주사대부고처럼 전국단위 모집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치르는 유형이 아니라, 기장군과 부산시내 소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자 중 우선선발하는 학교장전형 학교다. 평준화지역의 일반고처럼 배정방식이 아니라는 데서 선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전국단위 모집의 인근 한국과학

영재학교나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치르는 부산국제고 외고와는 확연히 다르다. 규모도 작다. 학급당 30명으로, 5학급 총 150명을 모집한다. 과학중점학교 1기를 모집했던 2010학년과 2011학년에 한 해 120명 모집에 불과했던 작은 학교다. 이 작은 학교에서의 이만한 실적은 괄목상대다.

부산 장안고와 같은 학교장전형고는 평준화지역의 일반고와는 달리 대부분 배정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탓에 학생 수가 적어 학생 배정이 힘든 지역, 실업계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 중심으로 학교장전형고가 자리하고 있다. 부산지역엔 9개의 학교장전형고가 있으며 모두 배정이 아닌 학교장전형을 치르는 곳이다. 부산 기장군 지역 내 학교장전형고는 부산 장안고와 장안제일고가 있으며 두 학교 모두 자율학교라는 공통점이 있고, 부산 장안고는 공립, 장안제일고는 사립학교라는 차이가 있다. 부산 장안고는 과거 기피학교였지만 교육부로부터 과학중점학교 지정을 받고,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과학고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대입성적이 오르면서 입소문이 난 학교로 전국 100개의 과학중점학교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지금은 지역 내에서 최고의 과학선도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 장안고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뒷받침된 덕이다.

과학중점학교, 운영의 묘 '탁월'

2013학년도 대입에서 부산 장안고가 서울대 합격자 7명을 배출하면서 위상은 전국단위가 됐다. 당시 졸업생은 106명에 불과했다. 2012년 처음으로 '부산 장안의 교육활동'이라는 부산 장안고만의 학교프로파일 홍보자료가 만들어졌다. 학교 관계자는

“부산 장안의 교육활동’ 학교프로파일을 만들어 대학 입학처장 들께 편지를 쓰고 직접 찾아 다녔다. 학생부종합전형(당시 입학 사정관전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교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 시골의 작은 학교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한다. 2014학년도 대입에선 부산 장안고 졸업생 113명 가운데 4명이 서울대에 합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실적은 하락한 듯 했지만, 이공계특성화대학에 30명 이상 합격했고, 성균관대에도 10명 가까이 합격했다.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는 일반고 가운데 이만한 실적은 최고 수준이다. 과학중점학교로 자연계열 실적에만 치중된 건 아니다. 부산 장안고에 1개 반 운영 중인 인문사회과정 20여 명의 학생들은 매년 서울대 실적은 물론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육사, 경찰대학 등의 합격실적도 내고 있다. 각종 대회 수상실적을 나열하기엔 지면이 부족할 지경이다.

학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덕도 크다. 부산 장안고는 3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갖췄다. 2~3학년은 전원 입소 가능하다. 1학년은 50% 가량만 입소할 수 있는 형편이지만, 지역학생들이 50%되는 덕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입학정원 150명 수준 부산 장안고의 대입 실적은 2015학년의 경우 서울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8명 합격에 6명 등록, KAIST에 의하면 5명 합격에 2명 등록, 포스텍에 의하면 4명 합격에 1명 등록 수준이다. 과학중점학교라는 데서 서울대뿐 아니라 과학기술원에 진학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웬만한 과고만큼의 실적이 난다. UNIST의 경우 부산 장안고

가 과고를 포함, 실적고교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서울대 수시합격자 1명은 KAIST로 진학했다. 의대에도 1명이 합격했지만 KAIST로 진학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장추천에 원칙이 있다”며 “진정성 있는 학교장추천”을 언급했다. “DGIST 추천을 원하는 학생에겐 ‘서울대에 합격해도 DGIST로 진학할 것인지’ 확답을 받아 추천을 해준다. 학교장추천을 남발해선 곤란하다.”

종합전형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작은 규모의 학교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전 교직원의 이해도 가능한 측면이지만, 중심엔 탄탄한 교육과정 운영이 대입 실적을 이끌었다 하겠다.

입학 전 2월부터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매년 2월 3박4일간의 ‘신입생 예비학교’를 통해 학문적성검사 프로그램과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과학중점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점 역시 부산 장안고의 핵심 교육역량을 받쳐주고 있다. 학기별로 집중이수제와 블록타임제를 실시한다. 과학중점과정의 3개년 수학 과학 교과비율을



45% 이상 확보하고, 과학중점과정의 경우 물화생지 각 I·II의 8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특별교과와 과제연구를 편성해 운영하고, 과제연구의 경우 과학 수학 외에 인문영역의 R&E도 병행, 최근 이공계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STEAM 교육을 실현한다. R&E 연구결과는 영어로도 번역, 보고서를 매년 발간한다. 관련 실험은 인근의 국립수산물과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UNIST 등의 도움을 얻고 있으며, 교내에 초고속카메라, IR분석기, 천체망원경 등 첨단기자재를 활용한다. 활발한 R&E 운영의 특징은 “아이들의 능력에 맞춘 진정성”이다. 학교 관계자는 “보통은 대학연구실과 연계되는 연구주제로 R&E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물의 수준이 높겠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생들의 능력으로 지도교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며 “연구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대학 입학처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장안고에서 운영 중인 R&E 주제 하나가 2014년 전국 화학탐구프런티어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운영도 돋보인다. 현대문학, 고급수학, 고급화학, 고급물리, 고급생명과학 등 7개 과목을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에 맞도록 교과목을 개설(각 4단위 68시간), 관련 교과 성적 상위 20% 이내 학생을 선발해 학생의 선택과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부산 장안고의 수많은 프로그램 중 다양한 심화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 역시 눈에겨봐야 한다. 교과심화 동아리의 경우 '무한공간'(수학), 'STEAM'(생명과학), 'CHEMISM'(화학), '장안의 연금술사'(과학), 'N.O.V.A'(지구과학), 'JA-NIE'(사회), '장안의 시나브로'(수학), '장독대'(독서토론), '리만가설'(수학), 'Jangan Windows'(영어잡지 발간) 등의 동아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STEAM 동아리는 2015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한국대표로 미국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질 강화의 측면으로 수시 논술전형과 구술심층면접에 효율적인 대처방법이 되고 있으며, 선배들의 결과를 토대로 진로선택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학창의대회, 논술경시대회, 모의재판, 토론대회, 진로체험프로그램, 포레멘토링, 교사멘토링 등 셀 수 없이 많은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매년 1박2일간 부산 장안고에서 열리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장안과학캠프(JSF)’에는 해외교류활동도 있으며 KAIST, 포스텍, UNIST, DGIST, 서울대, 서강대 교수들의 특강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장안과학캠프에 부산 장안고와 MOU를 맺은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조난고교가 매년 참가하고 있다. 학생들의 해외대학 명문탐방 프로그램도 전액 학교 지원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부산 장안고는 선발을 거쳐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과 아시아권 대학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있다. 교내에서도 2명의 원어민 교사와의 영어 회화 글쓰기 수업과 장안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영자신문도 발간한다.

학력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훌륭한 인성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 장안고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예체능”이다. 지난해 서울대가 예체능 교육 부문을 입시에 어떻게든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전부터 예체능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부산 장안고는 계속 중요시 했다. 수요일마다 두 시간씩 운영하는 계발활동시간은 교사들이 아닌 외부 전공자를 강사로 불러들여 교육을 시킨다. 1인 1악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이올린, 플룻, 첼로, 가야금, 기타, 클라리넷, 재즈댄스 등의 21개 과정 중 학생들이 선택, 일주일에 두 시간 교육을 받는다.

관련 프로그램으로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 교육인 ‘장안 감성한걸음’도 눈에 띈다. 지난해엔 외화번역가 이미도 초청 강연, 박호성의 신나는 국악여행 초청 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 공연, 부산청소년연극제 공연 참가, 아지무스 오페라단 초청 공연, 클래식계몽제작소 초청 공연, 샌드아트 뮤지컬 〈한 아이〉 공연,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 해설이 있는 재즈 콘서트, 버숨새 예술단 공연 등이 진행됐다. 시골의 작은 학교지만 학생들이 문화감성을 키우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산 장안고 방문 당시 느꼈던 학생들이 유난히 밝은 이유 역시 입시를 위한 교과공부만 강조하는 게 아닌, 인성과 감성을 보듬는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다.

한편 올해 부산 장안고 대입 실적은 이공계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과고생들의 조기졸업이 제한되면서 정원 상당수가 일반고로 돌아가는 입시구조인 가운데, 부산 장안고는 과학중점학교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공립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과고, 자사고를 뛰어넘는 수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심엔

교사들의 열정이 자리한다”며 “어느 한 프로그램이나 한 역량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종합적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나오는 결과”라 자평했다.

내신 반영의 학교장전형…

탈락이후 일반고 배정 문제 없어

학급당 30명으로, 5학급 총 150명을 모집하는 부산 장안고 전형은 지원자격에 의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입학정원의 50%인 75명은 지역우선전형으로 선발한다. 기장군에 주소를 둔 5개 중학교(기장중, 대청중, 신정중, 장안중, 부산중앙중) 출신에 한해 모집한다.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75명은 부산시 소재 중학교 및 울산 서생중, 김해 대동중 출신자에 한해 모집한다.

학교장전형은 오로지 중학교에서 산출한 내신성적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원서작성 시 ‘학교장전형고’란 안에 학교명을 기입하고 원서작성을 완료한 후 담임교사로부터 원서를 받아 학교에 직접 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다. 불합격 시에는 원서가 다시 교육청으로 돌아가 학생이 지원한 인문고로 배정받게 된다. 배정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 합격점에 대해 학교 측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느냐에 따라 합격점이 결정된다”며 “전형이 끝나기 전에는 누구도 합격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모집은 일반고 배정 전에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10일부터 3일간 원서를 접수한 뒤 16일부터 이틀간 전형을 치르고 19일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탈락자는 일반고 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변화와 혁신으로 대한민국 명문대 지도 바꾼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클

정성민

대학저널 기자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남궁 근, 이하 서울과기대)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며, 대학가

의 명문대 지도를 바꾸고 있다. 특히 정부재정지원사업 7관왕, 대학평가 순위 상승세 등 최근 성장세가 눈부시다. 이에 따라 서울과기대는 매년 대학 입시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학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고종 황제 칙령에 의해 설립, 역사와 전통 '자부'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대학, 서울과 기대. '과기대'라는 교명에서 최신식 대학의 이미지가 풍긴다. 하지만 사실 서울과기대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학이다.

즉, 서울과기대의 모체는 1910년 설립된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다. 당시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는 '교육입국조서'에 의거, 1906년 고종 황제의 칙령에 따라 설립됐다. '교육입국조서'는 1895년 발표됐다. '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교육에 있다'는 것이 '교육입국조서'의 핵심 내용이다.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는 '경성공립직업학교→경기공립공업학교→경기공업고등학교→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경기공업전문학교→경기공업전문대학→경기공업개방대학→서울산업대학→서울산업대학교'로 변경됐다.

그리고 2010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서울산업대학교는 서울과기대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어 서울과기대는 2012년 3월 1일자로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개교했다. 일반대 전환 이후 서울과기대는 교육과 연구경쟁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며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대학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사업 7관왕, 대학평가 순위 상승세

실제 서울과기대는 지난해와 올해 2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을 비롯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CK-II)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BK(Brain Korea)21 플러스사업 △실험 실습실(연구실) 안전 환

경 기반 조성사업 △고용노동부, IPP형 장기현장실습제 사업을 석권하며 정부재정지원사업 7관왕을 달성했다.

또한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순위 20위를 차지,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한 가운데 국립대에서는 2위(대의평판도 국립대 1위)를 차지했으며 2015년 영국 QS평가 기관의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는 특성화 분야 국내 2위(아시아 32위, 전년도 42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2014 청년드림대학평가'(동아일보) 우수 청년드림대학 선정, '2014 기업관점 산학협력평가'(산학협동재단) 대구도 대학 그룹 최우수 대학 선정, '2014 품질만족대상'(디지털조선일보) 대학 부문 대상 등 서울과기대는 각종 평가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명품 교육환경 구축, 대대적인 캠퍼스 환경 개선

"러닝팩토리는 학생들이 첨단 생산기술을 체계적으로 실험·실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장형 실험 실습실입니다.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술경영융합대학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학생들이 러닝팩토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3학년 박종규 씨)

"자동차실험실에서는 기계·자동차공학과 학생들이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창의적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 교육이 진행됩니다."(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정희운 씨)

서울과기대는 명품 교육환경을 구축한 대학이다. 이를 통해



서울과기대는 기업이 인정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들을 양성·배출하고 있다. 러닝팩토리와 자동차실험실이 대표적이다. 러닝팩토리는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고속가공기, 머시닝센터, 슈퍼드릴, 밀링머신, 3D프린터 등 주요 기자재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자동차실험실 역시 엔진 동력계, 중량분석기, 엔진튜닝 시험기, 디젤 인젝터 시험기, 교보재차량(승용차) 등 주요 기자재를 두루 구비하고 있다.

서울테크노파크도 서울과기대의 자랑이다. 서울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서울과기대는 교내에 서울테크노파크를 건설한 뒤 산업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등 산학밀착형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60여 개 기업이 서울테크노파크에 입주, 기술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산학협력연구동이 첫 삽을 떴다. 산학협력연구동은 산학협력 전용 건물로 2017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산학협력연구동은 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1만 5,500㎡ 규모로 건립되며 교직원 식당, 서점 등 각종 편의시설과 산학협력단 행정실, 교육 세미나실, 캡스톤디자인 LAB실, 교내·외

연구센터, 대학기업 공동연구실, 컨벤션센터, 다목적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아울러 서울과기대는 2019년까지 MIT미디어랩에 버금가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대단지 연구동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서울 소재 여타 대학들이 흉내 낼 수 없는 마스터 플랜을 실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과기대는 지난해 8월 국제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한 데 이어 지난 8월 재학생들의 여가활동 증진 등을 목적으로 풋살장과 다목적 운동장(2곳)을 개장했다. 또한 900명 규모의 제4생활관을 신축(2017년 완공)하고 있는 등 학생 복지시설 확충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금도 명품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서울과기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매년 캠퍼스 지도가 바뀔 정도로 빠르게 대학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을 머금은 캠퍼스, 그린 캠페인 ‘각광’

서울과기대를 방문한 사람들의 공통된 한 마디, 바로 “캠퍼스가 아름답다”이다. 서울과기대 캠퍼스는 명품 교육환경의 상징인 최신식 건물과 자연을 품은 명소가 함께 어우러져 멋진 경관을 연출한다.

먼저 향학로. ‘배움으로 향하는 길’의 의미를 가진 향학로는 서울과기대 정문부터 교정으로 펼쳐진 길이다. 길을 따라 플라타너스 등이 심어져 있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한다. 향학로를 걸

으며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면 향학로가 주는 아름다움 때문이다. 향학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을 연출해 사진작가들의 촬영장소로 인기가 많다. 붕어방도 있다. 붕어방은 '붕어가 사는 방'의 의미를 가진 연못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붕어방에 붕어가 없듯이, 붕어방에는 붕어가 살지 않고 잉어가 살고 있다'는 점이다. 붕어방 주변으로는 휴식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으며 나무숲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서울과기대의 아름다운 캠퍼스 경관은 최근 드라마와 영화촬영 장소 섭외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인기리에 방영된 tvN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에 이어 인기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의 촬영도 서울과기대 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과기대는 대대적인 건축사업과 함께 캠퍼스 환경개선 사업, 학생복지 공간 조성으로 교육·연구시설 확충과 학생복지 간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난 상반기에 '어의천'을 재정비, 보다 아름답고 안전한 에코 그린 캠퍼스를 실현했다. '어의천'은 서울과기대 교내에 흐르는 자연하천을 말한다. 지난 5월에는 중앙도서관 330㎡의 널찍한 공간에 북카페를 개관,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북카페에서는 50여 종류의 정기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커피와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취업·글로벌 역량, '등 대학'으로 우뚝

서울과기대 하면 취업역량을 빼놓을 수 없다. 서울과기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순위에서 62.5%의 취업률로 '나'그룹(졸업생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위를 기록, 최근 5년 연속 취업률 최상위권을 지켜가고 있다.

이는 서울과기대의 체계적이고 우수한 취업지원시스템에 따른 결과다. Co-op(Cooperative Education)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Co-op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일정 기간(6개월 이상) 동안 전공 관련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말한다.

특히 서울과기대는 Co-op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결과 지난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의 IPP형 일·학습병행제 시범대학에 선정됐다. IPP는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의 약어로 장기현장실습제를 말한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서울과기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향후 5년간 매년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학계열과 경영학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IPP를 운영한다. IPP 참여 학생들은 월 12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며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산업체에서 실무능력을 쌓게 된다.

서울과기대 LINC사업단의 교육지원센터도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창의설계와 종합설계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공학계열 학생들이 졸업논문 대신 졸업 작품을 설계 · 제작하는 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 교과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캡스톤디자인 관련 동아리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과기대 종합인력 개발센터는 △교양필수 취업교과목 운영 △취업박람회 △이력서 클리닉 △기업설명회 △캠퍼스 리쿠르팅 △리더스프로그램 △청년 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셀프 면접시스템 △대기업 동문과 공기업 인사담당 멘토링 △모의 직무적성검사(SSAT) △집중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울과기대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서울과기대는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목표로 토익, 토플, 영어회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고 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는 영어캠프(STEP Camp)를, 학기 중에는 방과 외 영어장학프로그램(STEP Master)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프로그램도 서울과기대의 강점이다. 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과는 영국 허트포드셔대(University of Hertfordshire)와 복수학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형대학과 기술경영융합대학 글로벌테크노경영 전공은 미국 몽클레어주립대(Montclair State University)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경영융합대학 MSDE 전공과 ITM 전공은 영국 노섬브리아대(Northumbria University)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기대는 전 세계 35개국 123개 대학 · 5개 기관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하고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학생복지도 최고 수준

서울과기대는 교육환경뿐 아니라 학생복지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기숙사의 경우 불암학사, KB학사, 성림학사로 구분되며 전체 재학생의 13%를 수용하고 있다. 제4생활관이 신축되면 기숙사 총 수용인원은 2,580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약 22%를 수용하게 된다. 기숙사에는 2인 1실 또는 4인 1실의 방을 비롯해 카페, 편의점, 휘트니스센터, 세탁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학생복지 차원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서울과기대가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기대는 50여 개의 교내 · 외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어 장학금 수혜자가 전체 학생의 약 53%에 이른다. 총장학금액은 등록금 대비 45% 수준으로 서울과기대는 ‘201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장학금 부문 전국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남궁 근 서울과기대 총장은 “서울과기대는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대학 중 하나로 매년 입학생들에게 묻는 만족도 조사에서 대단히 높은 점수가 나오는데 입학 전보다 입학 후 만족도가 훨씬 높은 대학”이라면서 “서울과기대는 서울에 있는 유일한 종합 국립대로서 최고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원 같은 캠퍼스와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명문대학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글

•
항정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정부는 고등학교단계에서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와 연계하여 직업교육을 받고 이와 같은 교육이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선진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고교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전문계고를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로 개편하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의 지정과 육성,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 등

[표 1]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연도별 현황(2011~2014년)

(단위: 개교, 명, %)

연도	고등학교 전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11	2,282	1,943,798	520	22.8	353,113	18.2	21	0.9	12,886	0.7	499	21.9	340,227	17.5
2012	2,303	1,920,087	526	22.8	343,987	17.9	27	1.2	13,190	0.7	499	21.7	330,797	17.2
2013	2,322	1,893,303	528	22.7	336,102	17.8	34	1.5	15,728	0.8	494	21.3	320,374	16.9
2014	2,326	1,839,372	535	23.0	329,163	17.9	36	1.5	15,714	0.9	499	21.5	313,449	17.0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 조사기준일: 각 당해 연도 4월 1일 기준

* 비율은 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비율임 /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지정 운영 중이나 국방, 치안 등의 사유로 통계조사에서는 제외됨

현장중심 취업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 정부에서도 고교단계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현장직무역량 강화와 취업 희망자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정착하기 위해 마이스터고를 활성화하고, 고졸 취업의 지속적인 확대 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다(교육부, 2014).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졸업 후 우선취업 및 기술명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08



년 도입되었다. 한편, 특성화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에 의거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2007), 전문계 고등학교(2007~2010)로 불리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0.6.29.)에 따라 현재의 '특성화 고등학교'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에서 고교단계 직업교육을 다양화 하는 방안의 하나로 특성화고가 처음 제안되었으며, 2010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전문계고 중에서 종합고를 제외한 직업교육분야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 일반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전환되었다(허영준·김중우, 2013).

여기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기관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관련 통계를 통해 고교 직업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현황

1. 마이스터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014년 4월 1일 현재 36개, 학생 수는 15,714명이며, 최근의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을 반영하듯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학교 수가 1.5%, 학생 수가 0.9%로 매년 그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2014년 4월 1일 현재 우리나라 특성화고는 499개교이며, 학생 수는 313,449명이다. 전체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4년 4월 현재 학교 수는 21.5%, 학생 수는 17.0%로 최근 학교 수는 큰 변화가 없고, 학생 수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반적인 학생 수의 감소에도 기인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이 기존 운영 학교들에 대한 지원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중등 직업교육기관인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가 전체 고등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월 기준 학교 수가 전체의 23%로 최근 증가되고 있으며, 학생 수는 18%대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표 2]에서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시·도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현황을 살펴보면, 마이스터고는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시·도별로 1개교 이상씩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표 2] 시·도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현황(2014년)

(단위: 개교, 명, %)

연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서울	3	1,460	197	71	49,692	4,732
부산	3	1,742	240	36	23,838	2,157
대구	1	896	127	19	18,336	1,473
인천	2	830	121	27	21,433	1,801
광주	1	238	45	11	10,507	771
대전	1	596	80	11	10,272	794
울산	2	718	121	9	8,705	613
세종	-	-	-	1	610	57
경기	2	968	127	74	61,166	5,115
강원	2	588	98	23	9,745	1,009
충북	3	901	122	24	15,497	1,146
충남	3	823	114	27	13,321	1,097
전북	3	1,526	198	29	13,872	1,169
전남	4	1,465	178	46	18,087	1,704
경북	4	2,191	312	49	16,866	1,470
경남	2	772	105	36	17,420	1,524
제주	-	-	-	6	4,082	306
총계	36	15,714	2,185	499	313,449	26,938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 조사기준일: 2014년 4월 1일 기준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지정 운영 중이나 국방, 치안 등의 사유로 통계조사에서는 제외됨.

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경북과 전남지역이 4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수와 교원 수의 경우 경북지역이 각각 2,191명과 3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특성화고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특성화고가 운영되고 있

[표 3]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졸업 후 상황 추이

(단위: 명, %)

구분	전체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입대자	미상	진학률	취업률
마이스터고	2011	6,063	3,400	1,963	391	47	262	56.1	75.0
	2012	6,750	2,989	2,601	689	37	434	44.3	69.8
	2013	5,280	752	3,798	473	108	149	14.2	85.9
	2014	5,593	692	4,113	548	85	155	12.4	85.4
특성화고	2011	114,690	69,944	29,756	8,608	1,142	5,240	61.0	68.2
	2012	108,950	54,484	41,791	7,999	781	3,895	50.0	77.8
	2013	105,907	44,152	42,900	13,912	546	4,397	41.7	70.1
	2014	106,521	40,353	47,539	14,499	450	3,680	37.9	72.3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 조사기준일: 각 당해 연도 2월 졸업일 기준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지정 운영 중이나 국방, 치안 등의 사유로 통계조사에서는 제외됨.

* 졸업자는 당해 연도 졸업자에 해당함 / * 진학률 =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 / 당해 연도 졸업자) * 100

*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임 / * 취업률 = {취업자 수/취업대상자수} * 100 / * 취업대상자 수: 졸업자 수-진학자 수-입대자 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수와 교원 수의 규모도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마이스터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졸업 후 상황

중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가장 큰 관심은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현황일 것이다. 최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졸업 후 상황 추이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진학률에 비해 취업률이 높으며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취업대상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에 대한 취업자 비율로 취업률을 보았을 때, [표 3]에서 마이스터고는 2012년에 취업률이 다소 주춤하긴 했으나 이후에는 상승 추세에 있다. 반면, 진학률은 기준년도 전체 졸업생에 대한 진학자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2011년 56.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12.4%를 나타냈다.



특성화고의 취업률과 진학률도 마이스터고와 그 경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의 경우 2011년 68.2%, 2012년 77.8%, 2013년 70.1%, 2014년 72.3%로 2012년과 2013년 사이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진학률은 2011년(61.0%) 이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37.9%를 나타냈다. 한 때 직업교육이 목적인 전문계고(기존 실업계고)에서도 진학률이 취업률을 웃도는 경향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 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활성화 정

책과 고졸 취업자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의 영향으로 중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가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나오며

이상으로 관련 통계를 통해 정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와 고졸자 취업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중등 직업교육기관에서 대학 진학보다 선취업을 선택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가 현장중심의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고졸취업 정책은 산업별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핵심 생산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우리나라가 능력중심사회로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http://www.law.go.kr>(2015. 9.1)
- 교육부(2014).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
- 허영준·김종우(2013). 정부부처·지자체·산업체 연계 특성화고 지원 확대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페이퍼 2013-1.

한국교육개발원(KEDI) 창립 43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 개최



8월 27일(목), 한국교육개발원(KEDI) 창립 43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를 우리 원 제회의실과 한국교총회관 단재홀(2층)에서 각각 개최했다. 기념식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과 백순근 원장의 43주년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술세미나는 '글로벌 시대의 한국교육 혁신방향'이라는 주제 하에 백순근 원장의 인사말, 김재복 전 경인교대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영길 유엔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 회장이 '글로벌 시대의 한국교육 혁신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박부권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미래 발전방안'을 제목으로, 이종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글로벌 교육협력 과제와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허경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과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교육협력 과제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장석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와 윤중혁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 교육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교육과 함께 한국교육개발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고자 기획된 것으로, 글로벌 시대에 한국교육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도 주요 교육 정책 및 현안과 한국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학술세미나를 포함한 KEDI 교육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연수원과 자유학기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9월 2일(수) 오전 11시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법무연수원(IOJ)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과 법무연수원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추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의 실현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확산·발전시키는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만큼 각 기관의 전문화·특성화된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여,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법무연수원은 검사·검찰수사관·보호직·출입국관리직·교정직 등 법무부·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법무·검찰 발전을 위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법무와 관련된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법무연수원 탐방 및 법무·검찰공무원 직업 체험, 법무·검찰공무원 직업 관련 강의 등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자유학기제 협업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법무연수원을 포함하여 총 27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도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기관과 협업체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9차 자유학기제 포럼 개최



9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 (21층)에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대학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제9차 자유학기제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21세기 교육 R&D 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각 대학의 다양한 부서 및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 그리고 일선학교 교사들이 참여하여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학의 협력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자유학기제를 위한 대학의 연계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후, 이산호 교수(중앙대학교), 이수연 교무처장(한국폴리텍대학교), 이규식 평생교육원장(경북전문대학교), 우근태 입학사정관(영남대학교) 등이 차례 발표를 하였다. 이어, 전재수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경숙 입학사정관(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용택 장학사(구미교육지원청), 박홍철 교사(한국삼육중학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자유학기제의 활동 및 향후계획, 그리고 학교 및 대학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번 포럼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대학의 역할 및 지원방안을 탐색하고,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대학들의 성과 및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포럼을 통해 학교와 대학 그리고 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현장지향적이며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 및 협력 방안이 도출되었다.

제9회 청람교육포럼 및 제76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9월 11일(목) 오후 2시 우리 원 제1회의실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이라는 주제로 '제9회 청람교육포럼 및 제76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2015 세계교육포럼(이하 2015 WEF)'에서 채택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의 촉진'이라는 새로운 교육비전을 우리나라에서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내용을 교육분야 연구자와 전문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청람교육포럼'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원대학교가 우리나라의 중요 교육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토론의 장으로, 올해부터는 충청북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2015 WEF 준비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 WEF 교육의제와 한국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습 성과 평가 실천', 한국교원대학교의 '한국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의 확대 및 차별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주제의 학교현장사례 발표가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이해영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본부장의 진행으로 홍은표 교수(상명대학교), 민경석 교수(세종대학교), 박승규 교수(춘천교육대학교), 광병남 교사(충북영동초등학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우진 팀장(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이 전체적인 주제를 아우르는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공대의 귀환' 의미·과제·전망 기사가 가장 유익했습니다. 이공계열 중 공대 분야에 우수한 인재 유입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는 향후 한국 미래사회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희망적인 기사가 자주 등장 했으면 합니다.

임용하 (경기 고양)

<교육개발>의 현장르포 기사를 항상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학교들이 정해진 틀 속에서도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번 현장르포에서는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약동초등학교의 기사를 읽고 공감을 느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융합교육을 통해 어려운 과목들을 흥미롭고,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교육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이름 (충북 제천)

'창의·인성 교육'은 분명 하나가 아닌 둘입니다. 만약 이 둘을 합성해 그에 따른 지향점을 찾다보면 어느 한 쪽을 뺄 수 없어 두루뭉술해지는 단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창의와 '인성'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규 (경북 의성)

대학 구조개혁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주요국의 대학 입시' 기사를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의 방법을 선례로 삼아 장점들을 잘 취합하여 대학 구조개혁의 뼈대를 세우고 별 탈 없이 정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나 (서울 양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지 3년째입니다. 이미 자유학기제에 관한 큰 골격은 잡혀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가꾸고 안착시켜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부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류선하 (강원 원주)

외국의 컴퓨터 교육 실태 기사를 읽고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최근 언론에서 소프트웨어 교사의 부족 현상과 교육기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우혁 (경기 여주)

한국의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전망'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광복과 전쟁 이후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으로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의 경제발전을 이룩해 냈으며, 이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가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손승욱 (서울 구로)

대학생으로서 무크(MOOC)의 확산과 발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의 평가로 고등교육의 질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후 높은 수준의 열린 강좌를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또한 대학 졸업 후에도 열린 강좌를 지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여러 대학의 무크 참여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세계시민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화영 (전북 전주)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



KEDI 홈페이지(국문)
<http://kedi.re.kr>



KEDI 홈페이지(영문)
<http://eng.kedi.re.kr>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https://hiedupport.kedi.re.kr>



교과교실제연구·지원센터
<http://scmc.kedi.re.kr>



교원양성기관평가센터
<https://necce.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
<http://edumac.kr>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기관평가연구소
<http://ceiec.kedi.re.kr>



대학평가본부
<http://uce.kedi.re.kr>



방과후학교
<https://www.afterschool.go.kr>



방송통신중·고운영센터 포털시스템
<http://openschool.kedi.re.kr>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영재교육연구센터
<http://gifted.kedi.re.kr>



인터넷 통일학교
<http://tongil.mest.go.kr>



자유학기제온라인정보시스템
<https://freesem.moe.go.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s://www.hub4u.or.kr/hub/main.do>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http://stopbullying.kedi.re.kr>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schoolhealth.kr>



한국교육중단연구
<http://kels.kedi.re.kr>



AskKEDI 전자도서관
<http://askkedi.kedi.re.kr>



OECD 교육정보센터
<http://oecd.kedi.re.kr>



Wee 프로젝트
<http://www.wee.go.kr>



「교육개발」, 「한국교육」 웹진
<http://edzine.kedi.re.kr>

2015년, 교육을 통해 희망을 키우고 꿈을 일구며 미래로 나아갑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의교육',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한국교육개발원이 '희망의 새 시대로 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과 바른 교육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효능감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해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고
 낯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국가와 세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향하며
 저마다 꿈과 끼를 키우고,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을 성취하게 하며
 존중과 배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초·중등교육의 창의·인성 교육, 미래사회 역량교육, 세계화 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이어져
 대학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국가발전과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